

연세경영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귀하에게
이 책을 통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3 ANNUAL REPORT

연세경영 2013학년도 연차보고서

2015년 완공 목표, 경영관 신축 기공식

‘2013 세계 100대 MBA’로 선정
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과 복수학위 협정 체결

YSB Pride 10 선정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연세경영 100주년에 빛나는 2015년.

연세경영이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갈 경영관을 완공합니다.

선배와 후배,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힘을 모아

더 큰 미래를 꿈꾸며 큰 뜻을 새기며 쌓아올린 연세 경영관.

이제 설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연세경영!
새로운 100년의 시작



CONTENTS

연세경영 100주년, 이제 더 큰 미래를 엽니다

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인 여러분

지면을 통해 2014년 연세경영의 소식을 전하고 더불어 인사를 올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매년 한 해 한 해가 모두 뜻 깊지만, 올해는 연세경영이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더불어 지난해 착공한 신축 경영관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때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1915년에 조선기독교대학 상과로 출범한 연세경영은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연세경영 100년은 1908년 시작된 하버드대 경영대학보다 불과 7년 늦은 것으로, 그만큼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이후 1965년 MBA가 출범해 50년 역사를 자랑하며, 1976년에는 국내 최초로 최고경영자과정(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개설하면서 CEO들에게 새로운 세계경영학 트렌드와 다양한 경영 사례의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국내 최초로 세계화에 발맞춰 영어로 교육하는 글로벌 MBA 과정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세경영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즈에 3~4년 연속 세계 100대 MBA에 선정되고 있으며, 2020년 까지 세계 50대 MBA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세경영은 시대정신이기도 한 Creative Leadership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윤리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비즈니스 스쿨로서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경영이 지식 교육의 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에서 사랑 받고 사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된 사람', 즉 지성인을 양성하는 전인 교육의 터전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연세경영의 창립 100주년이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100년은 연세경영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더욱 빛나고 큰 미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연세경영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5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 / 경영전문대학원장 박 영 렬

박영렬

미래路, 함께

동문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글로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연세경영의 크고 아름다운 발걸음

손잡GO, 함께

다양한 동문 교류와 협력 활동을 통해
함께 손잡고 발전하는
연세경영!

세계路,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으로
발전하는 연세경영 각 프로그램별
2013학년도 빛나는 발전상을
만나봅니다

05	Dean's Message	연세경영 100주년, 이제 더 큰 미래를 엽니다
06	연세 건학정신 및 YSB 비전	
08	Key Achievements	YSB의 2013년을 되돌아보다
12	경영관 건축	연세경영 새로운 100년의 요람
16	기부자 인터뷰 I	경영관에 김기영 명예교수의 이름을 새기다, 연세생산전략연구회
18	기부자 인터뷰 II	신축 경영관이 연세경영의 근간이 되길...,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이사(경영 76)
19	기부자 인터뷰 III	연세의 미래에 우리의 열정을 더하다,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20	기부자 인터뷰 IV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GMT(Global Management Track)
21	기부자 인터뷰 V	함께해서 더 뜻 깊은 기부, 백유진 · 김호준 부부
22	기부자 인터뷰 VI	30년을 이어온 모교 사랑 후배 사랑, 이두원 한양철강공업㈜ 회장(상학 58)
23	기부자 인터뷰 VII	따뜻한 마음이 후배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다, 김성찬 BLACKROCK 전무(석사 98)
24	기부자 인터뷰 VIII	세경장학금의 정신을 헤아린 특별한 기부, 유기성 동문(경영 06)
25	기부자 메시지	작은 정성이 큰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26	캠페인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28	캠페인	나눔을 실천하는 내리사랑의 전통 2014 Class Gift
30	기금 현황	연세경영을 바꾸는 나눔의 철학 경영대학 기금 현황
34	연세경영 100주년	연세경영 100주년, 새로운 100년의 시작
36	재상봉 행사	모교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다!
38	동문 프로그램	YSB A/S 특강, 그리고 아주 특별한 뒤돌이
40	'동문과 함께' 주요 스케치	
42	학부	더 큰 세상을 향한 눈부신 도전
44	MBA	50년 간 쌓은 글로벌 리더 양성의 금자탑
46	석·박사	활발한 학문적 성과로 연세의 이름을 드높이다
48	AMP	원종철 11대 동창회장장과 이흥기 12대 동창회장의 만남
50	상남경영원	국내 최초 경영자 교육 전문기관
52	경영연구소	미래 경영의 비전과 솔루션을 제시하다
54	Faculty & Research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 그 열정
57	연세경영 교수진	
58	Operational Highlights	
66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연세 건학정신 및 연세 이념

비상하는 연세의 푸르고 눈부신 힘

연세 건학정신

연세대학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는 성경 말씀(요한복음 8:31~32)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연세 이념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이다.

연세인은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간다. 또한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우리 연세인은 이러한 사명을 깊이 새겨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적 역량을 힘껏 발휘한다.

YSB 비전 및 미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YSB

Vision

비전

To become a world class business school based on outstanding research and education
세계적 수준의 경영교육 및 연구기관

Mission

미션

To produce influential and pioneering research and to develop creative and ethical business leaders with a global perspective through excellent education
탁월한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의 육성

ISSUE & NEWS

YSB의 2013년을 되돌아보다

YSB Pride 10 제정

YSB는 2013년 1학기, 학생들에게 공모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세경영 문화 조성을 위해 실천하고자 하는 'YSB Pride 10'을 선정했다. 기본 에티켓, 나와 상대방, 그리고 사회를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구성된 'YSB Pride 10'은 연세경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 줄 것이다.

'YSB Pride 10'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정산 학생(경영 05)은 "YSB Pride 10은 단순히 학교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더 나아가 생활에서 그대로 실현해도 좋을 소중한 가치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세경영인이라는 자부심으로 10가지의 덕목들을 소중히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송이 학생(경영 07) 또한 "삶의 큰 비전을 잡아준 것 같다. 분명 열 가지 덕목 모두 사소하고 간단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모여 큰 가치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대학교 올린 경영대학과 복수학위 협정 체결

경영전문대학원은 2013년 11월 25일 미국 워싱턴대학교 올린 경영대학(Olin Business School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과 복수학위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복수학위 교류 협정에 따라 학생들은 양교에서 각각 8개월과 5개월의 교육과정 이수 후 연세대학교의 MBA 학위와 워싱턴대학교의 재무 석사 학위를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 2014년 봄에 첫 신입생을 선발한다.

1958년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경영학 교육원조 계획'이 발의되어 이후 6년간 한국이 경영학문을 시작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워싱턴대학교와의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교가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한편 워싱턴대학교 올린 경영대학은 2012년 <U.S. News & World Report> 14위, <이코노미스트> 42위, <파이낸셜타임즈> 61위에 오른 명문 경영대학으로 특히 재무 분야가 강세이다.



좌로부터 김기영 경영대학 명예교수, 송자 전 연세대학교 총장, 오하드 카단 워싱턴 경영대학 재무 교수, 마한드라 굽타 워싱턴 경영대학 학장,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박용석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임건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

이코노미스트 및 FT 선정
'2013 세계 100대 MBA'로 선정

경영전문대학원 MBA 프로그램이 글로벌 무대에서 또 다시 인정을 받았다. 연세대 풀타임 글로벌 MBA(GMBA) 및 파트타임 코퍼레이트 MBA(CMBA)는 각각 '2013 세계 100대 MBA'에 3년과 4년 연속 랭킹에 진입했다. 먼저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10월 세계 랭킹을 발표하며 연세대 글로벌 MBA를 91위에 올려놓았다.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며 2011년 이후 3년 연속 랭킹에 해당된다. 풀타임 MBA 평가방법은 취업 서비스와 재학생의 교육 경험이 중요한 지표이며, 조사 대상은 졸업생 전체이다. 연세대 글로벌 MBA는 1998년에 개설한 국내 최초의 주간 풀타임 영어 프로그램이다.

FT 선정 MBA 세계 랭킹 중 파트타임 MBA를 대상으로 하는 '2013 세계 100대 Executive MBA'에서는 연세대 코퍼레이트 MBA(CMBA)가 전년과 동일한 70위를 차지했다.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Executive MBA가 아닌 중간 관리자들을 위한 Corporate MBA로 세계 70위를 유지하는 저력을 발휘한 것이다.

FT의 파트타임 MBA 랭킹은 졸업생 연봉과 급여 인상률이 각각 20%로 가장 비중이 높다. 중간 관리자들의 연봉과 급여 인상률이 임원급보다 낮다는 절대적인 열세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서 Corporate MBA가 또 다시 70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2010년 국내 최초로 FT 랭킹에 진입한 이래 4년 연속 순위권에 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CEO가 펼치는 포럼

YSB는 2013년도부터 YSB 글로벌 CEO 포럼을 시작했다. 글로벌 CEO 포럼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시각을 함양하고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제1회 포럼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CMO 빌 홀버클이 맡았다. 빌 홀버클은 34년간 호스피탈리티와 게임 산업에 종사하면서 MGM을 세계적 인 레저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전문 경영인이다. 그는 호텔



페이스북 COO 셰릴 샌드버그의 강연 모습

산업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전통적인 서비스를 넘어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회 포럼의 주인공은 2011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임원이자 쌍용의 CFO인 달립순다람이었다. 그는 쌍용자동차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소개하며 "자질은 남이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재 개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전했다.

제3회 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페이스북 COO 셰릴 샌드버그의 강연은 일반 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약 1,200여 명의 청중이 몰렸다. 그녀는 자신의 저서 <린 인 Lean In>을 주제로 여성과 일,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녀는 여성 스스로에게 내재화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가정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회 포럼에서는 편똥또안 주한베트남 대사가 강연자로 나서 '한국-베트남: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동질성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이 지정학과 역사 그리고 문화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밝히며 양국이 세계화 시대를 맞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포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적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 사업 전략 제시 2013 연세-알토 경영사례분석대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핀란드 알토대학교와 공동으로 '2013 연세-알토 경영사례분석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핀란드의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는 각 학교 학생들이 4명씩 팀을 짜서 대회에 참가, 예선과 준결승, 결승 등 총 3회의 대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위 3개의 팀을 선발하며 막을 내렸다. 대회의 최종 준결승과 결승전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2013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이루어졌다.

결승전의 주제는 국내에서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핀란드 기업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수익 구조와 경쟁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로비오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1등의 영광은 'Toward social healthy & educational entertainment'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알토대학교 팀에게 돌아갔다. 2등은 원스탑 플랫폼 아이디어를 제 공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마지막 3등은 첫 번째로 발표를 진행한 알 토대학교 팀에게 돌아갔다.

우승의 영광을 안은 알토대학교 Asto Takla 학생은 "정말 여러 모로 잘 만 들어진 대회였다. 주제도 무척 흥미로웠고, 경쟁에 임하는 연세대학교 학 생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처음 방문한 서울 그리고 연 세대학교는 오래도록 기억이 남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등에 오 른 광수지 학생(경영 11)은 "하루 전 케이스를 받아 밤새 준비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발표 준비를 해 본 적이 없는데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웠다."고 환한 웃음을 보였다.



연세-알토 경영사례분석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알토대학교 팀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EMBA 졸업생 'Korea Business Program' 첫 진행

YSB의 경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서도 넓어지고 있 다. 2013년 11월 3일 스웨덴 명문 대학 예테보리대학교(University of Gothenburg)의 Executive MBA 졸업생 9명이 'Korea Business Program' 이라는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연세대 경영대학을 찾았다. 양교 교류 협력 차원에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연세대 경영대 학 교수진들부터 한국 금융시장 · 마케팅 · 리더십 · 기업 전략 · 인적자 원 · 혁신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국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David Scott 씨는 "중국과 일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한국 시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통찰력과 이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번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마련된 한국 시장 중심의 강의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예테보리대학교 학생들은 이외에도 경복궁과 DMZ를 방문하면서 전통문 화와 한국의 분단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Markus Lindbon 씨는 "타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직접 방문하는 것 만만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굉장히 유익했고 이번 행사를 마련 해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연세대 경영대학은 앞으로 해외 대학과의 단기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 으로 유치해 세계 속에서 연세 경영학 그리고 한국 기업 환경을 알려 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를 찾은 예테보리대학교 EMBA 졸업생들

2013년 연세경영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세계 우수
경영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 그리고 연세경영 100주년을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이를 계기로 연세경영은 더 큰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경영관 신축 기공식

연세대학교 경영관 신축을 알리는 기공식이 2013년 11월 27일 오전 11시 경영관 신축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 는 많은 교내외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갑영 총장은 기공사에서 "연 세경영은 경쟁이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다."며 "글 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교육과 연구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관이 완공되는 2015년은 우리 대학 창립 130주년이자 경영학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오늘 기공식을 계기로 100년 연세경영 의 자존심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세 후학들이 더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 도록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기공식은 20명의 교내 외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과 첫 삽 뜨기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경영관은 대강당과 노천극장 사이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등 총 6,090 평의 규모로 신축된다.

학생들의 사례 토론이 중요한 경영학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강의실과 도 서관 주변에 토론실을 배치하고, 대부분의 강의실은 계단형으로 설계해 교수-학생 간 토론식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학부, MBA, 석박사 대학원생, 교수와 최고경영자 등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소 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아트리움을 갖추고 있다.

자연과의 교감을 설계의 주안점으로 둔 것은 신축 경영관 최대의 특징이 다. 경영관은 우리 대학교에서는 처음으로 USGBC의 글로벌 평가인증제 도인 LEED(리드,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 증과 국내 녹색 건축물로 최우수 인증을 받는 친환경 건축물로, 우리나라 경영대학 건물 중 가장 아름답고 미려한 건축물이 될 것이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EMBA 졸업생들이 경복궁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 5년 재인증 받아



YSB가 한국경영교육인증원(KABEA)으로부 터 5년 재인증을 받았다. KABEA 인증 현 황은 2013년 10월 1일 기준 총 30개의 대 학이고 재인증은 연세대를 포함해 5개 대학이다. 연세대는 2008년 국내 처음 으로 인증을 받을 당시 학부 프로그램에 국한되었지만 이번 재인증은 석 · 박사 프 로그램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인증원은 한국 경영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기관별 경영교육의 특성화, 교 육기관별 경영 교육의 체계적 관리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인증 절 차가 매우 까다롭다. 1차로 예비심사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단의 자체 평가보고서 심사와 실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끝나면 인증위원회의 인증 심의가 3개월 정도 이루어진 뒤 최종 인증 결과를 발표한다. 이처 럼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친 학교들은 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는다.

→ 왼쪽부터 윤은기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 원종철 경영전문대학원 AMP 동창회장, 김승 제 경영전문대학원 AMP 동창회 명예회장, 김학수 연세공인회계사회 전임 회장,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대표이사회장, 김영진 상경 · 경영대학 동창회장, 김정수 상경 · 경영대학 동창회 명예회 장, 고병현 상경 · 경영대학 동창회 고문, 박영렬 경영대학장, 김기영 전 광운대 총장, 송자 전 총 장, 김석수 이사장, 정갑영 총장, 박삼구 동문회장, 원한석 법인이사, 홍복기 행정대외부총장, 문 석진 서대문구청장, 백윤수 법인본부장, 김원욱 교수협의회 의장, 양병택 직원노조위원장

연세경영 새로운 100년의 요람

신축 경영관 공사 시작, 2015년 8월 완공 예정

마침내 경영관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경영관 신축 공사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2013년 11월 27일 오전 10시 대강당과 노천극장 사이에 위치한 신축부지에서 열렸다. 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2014년 1월초 본격적으로 토목공사에 들어갔으며, 공사 기간은 20개월, 완공은 2015년 8월 말 예정이다.

경영관의 연 면적은 약 20,135㎡(6,090평)이며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다. 연세경영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요람이 될 경영관이 완공되면 2020년 아시아 5위권, 글로벌 50위권 진입이라는 연세경영의 글로벌 비전을 달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드웨어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촌캠퍼스의 중심 위치에서 랜드마크가 될 경영관은 여섯 가지의 컨셉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신축되고 있다.

Connection 전통과 미래의 연결

경영관 신축 건물의 외관은 전통적인 건축미와 미래 지향적인 현대적 아름다움을 결합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의미를 담

고 있다. 경영관의 고층부는 석재를 이용해 고전적인 건축미를 살렸고, 저층부는 유리로 마감해 현대적인 건축미를 구현함으로써 신축 부지 북쪽의 전통적인 건축물들과 남쪽의 현대적인 건축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Communication 소통을 위한 아트리움

수많은 학부학생과 MBA 원우, 석박사 대학원생, 최고경영자 과정 참가자와 교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아트리움을 조성했다. 아트리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는 연세경영인들의 소통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창 공사 진행 중인 경영관 신축 현장

Communion with Nature 자연과의 교감

경영대학의 비전인 “창의적이고 윤리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에 역점을 두었다. 3층 높이의 탁 트인 아트리움과 테라스가든이 후면의 청송대 녹지 공간과 연결되고, 아트리움 양측에 학부와 대학원생의 도서관이 배치되어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Green 국내 최초 LEED 인증 대학건물

신축 경영관은 국내 대학건물로서는 최초로 LEED 인증건물이 될 전망이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의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평가하는 국제친환경 인증제도로 에너지 절약, 자연환경 보존, 친환경적 건축자재, 실내 환경의 쾌적성 등을 평가해 건물의 친환경성을 인증해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인증제도이다.

Succession 연세 역사의 계승 발전

경영관 신축부지에 놓여 있던 용재관은 연세 최초의 도서관 건물로 연세의 정신이 깃든 건물이다. 용재관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신축 건물의 외관은 용재관 타워를 일부 복원했으며 국제회의가 가능한 고급 강당은 “용재홀”로 명명하였다. 경영관 주변에는 의망원비와 김윤경 선생 흉상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설치물들을 보존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연세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Innovative IT 최첨단 유비쿼터스 IT 인프라

경영관은 연세학술정보관의 최첨단 IT 시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을 제공한다. 국제화상회의가 가능한 강의실, 디지털 미디어와 키오스크, 디지털 룸패드 등 유비쿼터스 IT 시설은 창의적인 리더 양성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경영관 층별 개요

공사 일정

- 2014.1 착공(시공 : 롯데건설, 감리 : 삼우)
- 2014.8 터파기공사 완료
- 2015.4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 2015.6 인테리어공사 완료
- 2015.8 종합시운전 및 완공

경영관 개념

친환경적, 미래 지향적 신축건물 신촌캠퍼스의 랜드마크 건물
경영대학 Core Value 반영 Creativity, Integrity, Global Perspective
연세역사의 보존과 계승 용재홀, 의망원비, 김윤경 흉상 등

경영관 부지

노천극장과 대강당 사이
신촌캠퍼스의 중심 중앙도서관 및 학생회관과 근접
자연경관 노천극장 및 청송대숲과 근접

경영관 규모 및 특성

지하 3층, 지상 6층, 연 면적 6,090평
자연 녹지와 연결되는 Atrium 공간 학생-교수 커뮤니티 공간
최첨단 연구 및 강의 시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활용

경영관 완공 2015년 8월 말

총공사비 550억 원 규모

건물 건축비 440억
IT 설비, 가구, 설계 및 감리 등 110억

건축기금 조성액 총 550억 원

서경배 동문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회장) 100억 원
건축 용도 기부금 적립액 230억 원
고객기부자 약정 입금예정액 40억 원

신축기금 추가조성 목표 180억 원

신축 경영관의 새로운 이름, 모두가 함께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신축 경영관 공간

구분		실명(좌석)	평(PY)	개소
공유시설	특수 공간	아트리움	93	1
		Information Lounge	35	1
		Creative Lounge	70	1
		Lobby - 1	42	1
		Lobby - 2	33	1
		Grand Stair Lounge	41	1
		검색대	15	1
		SNS Studio	11	1
		분반실	4	5
		토의실(조교실 내 토의실 포함)	4~7	16
여학생 라운지(휴게실)	12	1		
휴게라운지	4~8	5		
강의시설	계단형 강의실	용재홀 (190)	95	1
		초대형 강의실 (100)	57/59	2
		대형 강의실 (82)	52	4
		중형 강의실 (62)	43/44	2
		MBA 대형 강의실 (82)	52	1
		MBA 중형 강의실 (62)	44	1
	MBA 국제홀(82)	53	1	
	평면형 강의실	학부 평면 강의실 (80)	40	1
		학부 평면 강의실 (40)	22	2
		대학원 평면 강의실 (40)	23	3
		대학원 평면 강의실 (24)	16	2
	MBA라운지/토의실	Executive Lounge	32	1
		MBA Lounge	51	1
MBA 토의실		5~8	6	
MBA 원우회		11	1	
컴퓨터실	컴퓨터 강의실 (56)	38	1	
	컴퓨터 LAB실 (46)	30	1	
지원시설	도서관	학부 도서관 (164)	116	1
		대학원 도서관 (58)	59	1
		CPA 라운지	58	1
		대학원 라운지	17	1
연구시설	교수연구실	교수 연구실	8	90
		특임 · 명예교수 연구실	8	5
		외래 교수실	8	2
	조교연구실	중층 조교실	161	1
		Ph.D 연구실	15/17	2
	분야지원실	지원실	7~8	5
	연구센터	BMW Europe Management Center	30	1
회의실	Board Room	18	1	



MBA 대형강의실



컴퓨터 강의실



휴게라운지



대학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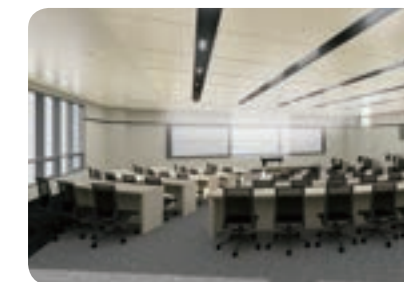
Executive 라운지



아트리움(전면에서 후정을 바라본 전경)



용재홀



초대형 강의실

최첨단 친환경의 내부 시설



라운지



인포메이션 라운지



학부 도서관

연세생산전략연구회

경영관에 김기영 명예교수의 이름을 새기다

연세생산전략연구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경영학에 필드 리서치를 접목시킨 학계의 큰 스승인 김기영 명예교수로부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교육받은 제자들의 모임이다. 대학과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던 이들은 스승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신축 경영관에 '김기영 세미나실'을 만들기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약정했다.



김기영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기영 명예교수가 교수로 재직했던 당시 그가 가르친 '생산전략'이라는 과목은 기업 현장을 중시하는 접근과 연구 방법으로, 연세경영의 학풍을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생산전략연구회는 김기영 명예교수의 '생산전략' 과목을 수강하고, 나아가 그의 문하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제자들이 30년 전 결성한 연구회다. 김기영 명예교수를 포함한 20여 명의 회원들은 생산관리학회와 한국경영학회 개최 때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연구를 발표하는 자체 세미나를 통해 최신 학문 동향을 검토하는 등 학술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대학과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경영학 발전에 기여한 제자들 역시 최근 은퇴를 맞이하면서 연구회는 차츰 친목 성격도 갖추기 시작해 현재는 매년 봄과 가을, 3회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김기영 세미나실' 마련 위해 기금 약정

연구회는 지난해 보다 뜻 깊은 일을 찾자는 취지 아래 2015년 신축되는 경영관에 스승인 김기영 명예교수의 이름을 건 세미나실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영 세미나실'의 건립은 단순히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 이외에 연세경영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연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희 연구회 회원 대부분이 각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며, 이외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모임이 30년이 되면서 우리의 활동이 실은 김기영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지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때마침 경영대학에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서 교수님의 이름을 건 세미나실을 만들면 매우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은 후배들에게 연세경영이 학문적으로 탁월하다는 사실과, 그 기저에 필드 리서치를 강조한 교육을 펼친 김기영 교수의 철학이 일정 부분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세미나실 건립의 취지라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경영학 연구라는 연세경영의 자부심과 경쟁력의 뿌리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기영 교수님은 경영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10개 대기업을 분석하는 등 새로운 시각과 실용적인 접근으로 경영학의 가치를 널리 알린 분입니다. 교수님이 번역하고 집대성한 '생산관리'라는 책은 10년 가까이 많은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경영학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영 교수가 만든 국내 최초의 생산 전략, 품질 경영 관련 서적들은 대한민국 경영학과의 주요 교재로 활용될 만큼 인정받았다



영원히 절게 깨어 있는 교수

연구회 회원들은 김기영 명예교수와 관련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박준병(경영 79) 한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님 방의 조교가 되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자 혜택이었다. 하지만 섣뚱 뽑아주지 않으셔서 1년간 눈에 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목소리 큰 학생으로 각인되면서 조교가 되었다."며 지난 일을 떠올렸다. 박 교수는 별정직으로 대전시에서 근무한 것과 최근 총장에 출마했던 일 등 개인적인 큰 결정이 있을 때마다 지금도 김기영 명예교수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지대(경영 82)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기영 명예교수를 "나와 무관하게 늘 절게 깨어 있는 교수님"으로 기억한다. 항상 제자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고, 새롭게 도전하는 제자를 격려해준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교수님은 논문 주제를 잡을 때 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시고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개인적으로 석·박사 과정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장학금까지 적극

적으로 주선해 주셔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었다."며 평생 은혜를 감으며 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규상(상학 68) 목원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왜 경영학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교수님께서 사제 연구 수업에서 왜 경영학이 중요한지,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 교수가 된 이후 대학에서 많은 과목을 가르쳤는데, 돌아보면 내가 제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김기영 교수님께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존경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기영 명예교수는 "훌륭한 한 명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한 덕분에 많은 제자들이 대학과 기업에서 나를 대신해 많은 일을 해주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는 제자들의 '김기영 세미나실 건립'에 대해 "연세경영 100주년의 기념비적인 건물에 내 이름의 세미나실을 제자들의 도움으로 만든다는 말을 듣고 평생 교직에서 학문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보람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송승철 동문(경영 76, (주)한불모터스 대표이사)

신축 경영관, 연세경영의 근간이 되길...

‘푸조’와 ‘시트로엥’ 국내 수입판매원으로 잘 알려진 한불모터스 대표이사인 송승철 동문(경영 76)은 수입차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경영인이자 끈끈한 동문의식을 가진 ‘연세경영인’이다. 그는 2015년 완공 예정인 경영대 신축과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쾌척했다.



연세 경영에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승철 동문

“지금까지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학술정보원 건립, 원주캠퍼스 발전 기금 1억 원 등 모교를 위한 자그마한 기부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영관 신축은 우리 연세 경영으로 봐서 매우 큰 프로젝트이고, 또한 제 나이가 사회적으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연배라서 먼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코오롱상사 외환국제금융부와 자동차사업부를 거쳐 국내 최초의 BMW 수입을 담당했던 송승철 동문은 2001년 ㈜한불모터스를 직접 창업해 현재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대개의 기업이 국내에 지사를 만들어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과 달리, ㈜한불모터스는 독립된 수입 판매 기업으로서 푸조를 한국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다. 또한 그는 지난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한국수입자동차 협회장을 맡으면서 국내 수입 자동차 산업의 위상을 국산차와 동등하게 올려놓기도 했다. 송승철 동문은 졸업 후 수입차 시장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금까지, 그 성공의 한 부분은 분명히 ‘연세경영’의 덕분이라고 밝힌다.

“학창 시절에는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사실 공부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세대가 개인주의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뭉칠 때는 어느 대학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당시의 인맥이 큰 재산이 되었죠. 직장에서도 많은 선배들이 있어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경영’에 대한 자부심,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연세경영은 오늘을 만들어준 근간이다

송승철 동문의 연세경영 사랑은 지난해 10월 한불모터스 사옥 옥상에서 개최한 ‘연세경영 80년대 학번 가을 모임’에서도 잘 나타난다. 장소 제공에서부터 음식, 여흥,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후원했다. 박영렬 학장과 만나면서 연세경영이 100주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보다 확장된 네트워크가 모교와 동문 사이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너무 인기와 유행을 쫓지 말고 나의 가치와 관심사를 찾아 매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하고 남들 하는 대로 막연히 준비하다가 시기와 기회를 놓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영학은 모든 분야에서 가능성이 있는 학문이므로, 원하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송승철 동문은 2015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영관 완공과 함께 연세경영이 더욱 큰 도약과 발전을 거듭하길 기대한다. 그는 연세경영이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비즈니스 스쿨이 될 것을, 연세경영이 그 자체로 모두가

아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과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연세의 미래에 우리의 열정을 더하다

연세경영 발전의 저변에는 여성 동문의 막강한 영향력이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의 중심에는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의 끈끈한 유대감이 자리한다. 장학금, 대학원 발전 기금 등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공유했던 여성동창회가 이번에는 경영관 건축기금으로 3,000만 원을 선뜻 기탁했다.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는 경영대학원 석사, 연구과정, 최고경영자과정(AMP) 모두를 아우르는 동창회로, 1999년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경제·사회적 리더의 위치에 활동해왔다. 사회적 영향력만큼이나 모교 사랑도 남다르다. 학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 대학원 발전 기금 기탁 등 모교 발전에 꾸준히 지원과 격려를 더해왔던 여성동창회가 이번에는 훌륭한 건물을 지어달라며 3,000만 원을 경영관 건축기금으로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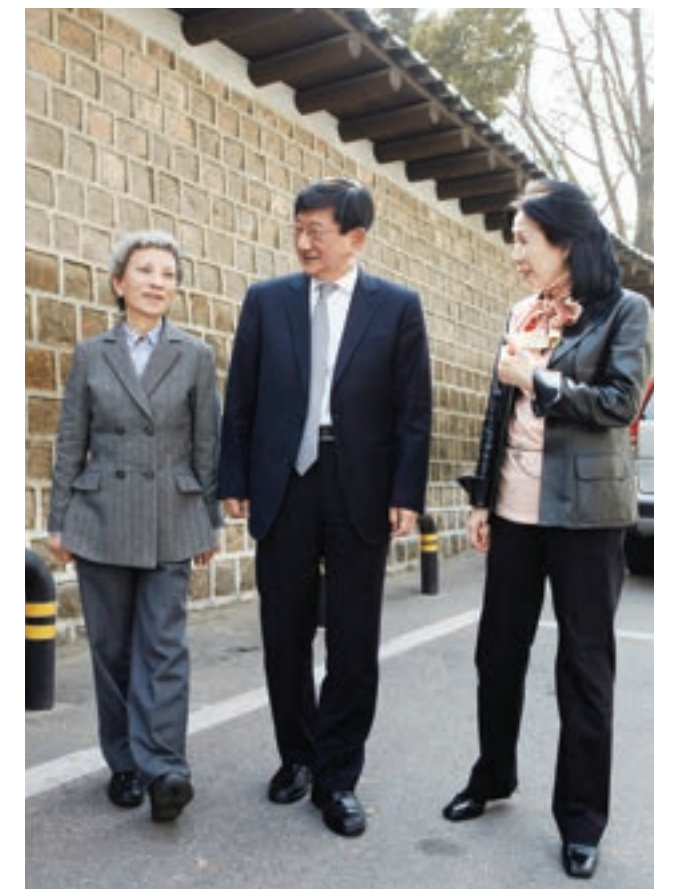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어요. 초기 여성동창회원만 120명에 이르렀어요. 여성 동문으로 구성된 만큼 여자가 여자(출어머니)를 돕는다는 취지였죠. 학점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학업과 사회 활동을 겸하는 이유로 학점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을 배려해 꾸준히 기탁을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로 초기에 비해 열의가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이번 건축기금 기탁을 기회로 다시금 모교 지원 활동을 적극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여학우들의 발전을 기대한다

지난 15년간 여성동창회의 기금 마련에는 누구보다 회장단의 역할이 컸다. 송효순 1대 회장, 강경숙 2대 회장, 신춘지 3대 회장, 김종남 4대 회장까지 각 회장을 통해 마련된 기금만 역대에 이를 정도. 물론 선도적 차원에서 회장단의 기부 금액이 상당하긴 했지만, 회원들의 참여도 꾸준한 기금 마련에 큰 힘이 되었다. 회장단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두텁기에 기금 마련부터 기금 기탁까지 회장단의 권유에 선뜻 동의할 수 있었다. 송효순 1대 회장과 신춘지 3대 회장은 입을 모아 여성동창회의 열정을 모교가 잘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학교에서 여성동창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입지가 있는 인물들이니 여성동창회에 대한 학교 측의 예우와 유대 관계만 잘 갖춰지면, 학교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국제전자기기상사 대표이사를 지낸 송효순 초대 회장(AMP 24기)을 비롯해 한울종합건설의 회장인 신춘지 3대 회장(AMP 27기), (주)다샤인 대표로 있는 김종남 4대 회장(AMP 36기), 그리고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 휴렛팩커드의 이화령 이사 등 여성동창회 회장·이사단의 대다수가 여성CEO로 자리해 있다.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동창회 선배들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작은 바람을 전해본다. “학업에 있어 지나간 사례를 분석하고 반추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관심을 갖고 학업에 흥미가 생길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생활을 비롯해 그 너머까지 계속되는 네트워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과 모교의 발전을 동시 지향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신춘지 3대 회장, 박영렬 학장, 그리고 송효순 1대 회장

GMT(Global Management Track)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회 GMT(Global Management Track, 세계경영트랙) 졸업생과 재학생 108명이 경영관 건축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모금 활동은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는 점, 재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아닌 학회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 등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캠페인을 진행한 GMT 회원들을 만났다.



왼쪽부터 이동진 동문, GMT 현 회장인 이창재 학생, 그리고 신재현 동문

GMT는 경영학과를 대표하는 학회 중 하나로 1996년에 창립되어 현재 졸업생까지 총 500명의 회원이 속해 있는 유서 깊은 학회이다. 학기 중에 모여 함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방학 중에는 해외 기업을 방문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선후배 간의 단단한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있다.

GMT가 학회 이름으로 2,000만원의 건축기금을 기탁할 수 있었던 것은 졸업생인 신재현 동문(경영 03)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신재현 동문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SNS에 구축되어 있는 GMT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동기들과 선후배에게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GMT의 응집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으로 한 달의 기한을 두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동문 선배님들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한 달 더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GMT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는 이동진 동문(경영 00)은 반갑

고 기쁜 마음으로 모금 활동에 동참했다.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금액을 한정하면서, 최대한 학회 선후배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서 개인 차원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일조하고 싶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학회의 이름으로 하면 분명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많은 이의 뜻을 모으는 점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부 활동은 재학생까지 함께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체 참여 회원 108명 가운데 현재 GMT 회장인 이창재 학생(경영 07)을 포함해 13명에 이르는 재학생이 자신의 용돈을 쪼개어 정성스럽게 기부금을 마련했고, 이는 졸업생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재학생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긴 했지만 형식적인 것뿐 기대하지 않았는데, 많은 후배들의 참여 문자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것은 금액을 떠나서 이번 모금 활동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GMT가 한 목표로 뜻을 모은 이정표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MT 회원들은 이러한 단체 기부 활동 덕분에 다시 한 번 졸업생들의 연세경영과 GMT 학회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동기들과 선후배가 모처럼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부수적인 소득도 올렸다고 말한다. 경영관이 신축되면 더없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GMT를 계기로 경영대학의 많은 학회들이 기부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유진 · 김호준 부부 함께해서 더 뜻 깊은 기부

2013년 5월 영원히 함께 하자고 두 손을 꼭 잡은 백유진 · 김호준 부부.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둘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바로 <120만 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이 그것이다. 둘이어서 의미가 큰 백유진 · 김호준 부부의 기부 활동을 소개한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백유진 · 김호준 부부

석박사통합과정에 다니고 있는 백유진 학생(석박 통합 12, 국제경영전공)은 얼마 전 색다른 경험에 가슴이 뻐뻐하다.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남편 김호준 씨와 함께 <120만 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다.

“처음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학교 발전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남편한테 이런 메일이 왔다고 했더니, 우리도 참여해 보자는 거였어요. 남편이 먼저 말해 주어 너무 기뻐요.”

부부와 연세의 인연은 매우 깊다. 부부의 양가 아버지 모두 연세대를 졸업한 그야말로 연세 가족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유진 씨의 외할아버지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연세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오셨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애정이 기부까지 연결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소 기부 문화에 관심은 많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마침 아내의 학교에서 이런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열린다고 해서,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사회인이 된 지금 당연하게 후배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알기 하루 전 부부에게는 매우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남편 김호준 씨의 논문이 매년 삼성전자에서 선정하는 ‘삼성논문상’에 뽑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상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던 부부는 때마침 캠페인을 알게 되었고 일부를 기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미 있는 상금이기엔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던 부부에게는 여러 모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120만 원이 누구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점에서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닌 마음이니깐요.”

부부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기부가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유진 · 김호준 부부가 보여준 기부는 마치 봄비처럼 작지만 생명을 움트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일 것이다.

이두원 동문(상학58, 한양철강공업(주) 회장)

30년을 이어온 모교 사랑 후배 사랑

이두원 동문은 1983년부터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지난해 30주년을 맞이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모교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이두원 동문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후배들은 자그마치 360여 명. 장학금 수혜자로서 현재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김지현 교수(경영 94)가 이두원 동문을 직접 만나 그의 후배 사랑의 정신을 들어보았다.



왼쪽부터 이두원 동문과 김지현 교수

김지현 교수(이하 김) : 30년간 이어진 연세경영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이두원 회장(이하 이) : 제가 입학 당시부터 가난한 나머지 등록금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 나가 돈 벌면 꼭 사회에 내놓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정확히 5년 한 이후 사업을 벌였는데, 운이 좋았는지 공장도 짓고 빌딩도 올릴 만큼 나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1983년 당시 경제학과 박진근 교수에게 이름은 알리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달아 제 뜻을 전하고 시작한 것이지요.

김 : 30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 저는 운이 70%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환

원해야지요. 기왕이면 저처럼 어려워 공부하기 힘들었던 이들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성적 위주로 바뀌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일절 관여치 않기로 했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김 : 훌륭한 사회인이 된 장학생들을 볼 때마다 감회와 보람이 클 것 같습니다.

이 : 언젠가 저를 찾아온 후배로부터 오랫동안 연락도 못 드린 것이 마음의 빛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배처럼 많은 장학생들이 빛을 진 마음을 기억했다가 아주 중요할 때 주는 기쁨으로 그걸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배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후배를 위해서 베푸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 회장님도 재학 중에 장학금 혜택을 받으신 기억이 있는지요?

이 :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장학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재학중에 처음 생겼지요.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 제적이 될 위기였는데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니, 그걸 신청하기 위해 한참을 달려가 도장을 파고 등록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지금도 모든 금융 관련해서 꼭 그 당시 판 도장을 씁니다.

김 : 연세경영 발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산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접목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부 따로 실전 따로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현장을 반영한 교육의 장으로서 연세경영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김 : 끝으로 저희 재학생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 제 경험을 비취 말씀드리자면 모든 일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망을 가지라고요. 야망이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또한 계획을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하십시오.



이두원 동문은 2013년 11월 11일 장학금 기탁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김성찬 동문(미국 BLACKROCK 전무, 석사 98)

따뜻한 마음이 후배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다

김성찬 동문은 지난 2012년부터 연간 약 5,000불의 장학금을 후배들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지금껏 모교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 장학금 기탁을 결심했다는 그는, 특히 장학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쓰이길 원했다. 그의 마음은 간절한 후배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연세대 신학과 출신인 김성찬 동문은 뜻한 바가 있어 98년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이후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금융공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샌프란시스코 블랙록 자산운용에 입사해 현재 아시아 이머징마켓 액티브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이나마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는 은사인 엄영호 교수를 통해 경영대학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United Board'를 통해 장학금을 기부한 후 가장 필요한 곳에 쓰였으리라는 믿음만 갖고 있다가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박사과정의 박종필 학생의 감사 편지였다.

"기부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즈음 받은 이메일은 감동 자체였습니다. 박사과정 막바지에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학생이 제 장학금을 전달받고 보낸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만큼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대상은 없다는 것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의 제 의견입니다. 학생이 지금은 어렵지만 졸업한 후 과거에 받은 도움을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몇 배로 돌려주지 않을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한국을 이끌어가는 연세경영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과정의 박종필 학생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학업을 이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지난해 10월 대비와도 같은 김성찬 동문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는 생면부지임에도 조건 없이 장학금을 쾌척한 선배에게 사랑의 빛을 졌다는 생각에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정말 큰 금액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후배에게 쾌척할 수 있다는 자체를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과연 제게 그 돈이 있다면 과감히 학교를 위해 후배를 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는 사랑에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학위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면 이 사랑의 빛을 잊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갚고



장학금을 통해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성찬 동문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모여 우리 연세경영이 더욱 견고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김성찬 동문은 박종필 학생의 이메일에 가벼운 답장을 보냈다. 자신 또한 가장 필요한 곳에 장학금이 쓰여 감사하며, 기회가 되면 주변의 후배들에게 간식을 사주라는 내용이었다. 김성찬 동문도 석사과정 당시 박사과정 선배들이 사준 식사가 고마웠다는 내용과 함께.

한편 김성찬 동문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기부 문화이며, 저 역시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찬 동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감사 편지를 보낸 박종필 학생

유기성(경영 06) 동문

세경장학금의 정신을 헤아린 특별한 기부

연세대학교 계산과학공학과 통합과정에 있는 유기성 동문은 2013년 2학기 학부 마지막 학기에 세경장학금을 받았다.

졸업을 앞둔 2013년 7월, 그는 “비록 졸업 후 대학원 생활을 하느라 큰 금액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작게나마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장학기금 240만 원을 약정했다. 스스로 학생의 신분임에도 장학금을 약정한 그의 특별한 사연을 들어본다.



졸업 직전 학생 신분으로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한 유기성 동문

83학번 최희규 동문에 의해 만들어진 세경장학금은 연세의 이름을 빛내거나, 연세사랑 정신이 투철하고 학교에 대한 봉사활동이 많거나, 세계경영인이 되기 위한 진취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진 재학생을 매 학기 6명씩 선정해 제공된다. 유기성 동문은 4학년 2학기에 선정되어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지지난해부터 음악대학 명예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2년간 두 번에 걸쳐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 활동을 계기로 세경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2년간 더 학교에 남게 되었는데, 이 참에 제가 학부 시절 받았던 혜택을 되돌려주면 어떨까 싶어 매달 연구비를 쪼개어 조금씩 나눠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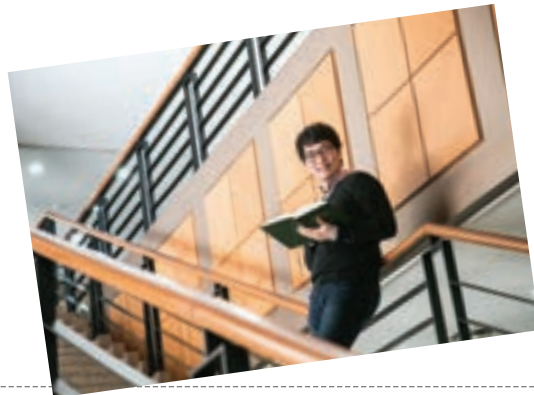
유기성 동문은 세경장학금을 받은 이후 “후배들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 주시는 장학금을 받고 감사한 마음이 매우 컸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배의 의도는 자신이 받은 장학금 이상을 후배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헤아렸다. 훗날 성공해서 선배님께 보답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 보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눔을 전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한다. 기본 좋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때는 또 그때의 몫이 있으며 당장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한다.

“사실 동기 선후배 중에는 학교와 자신의 발전을 무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도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고, 더 많은 장학기금이 마련될수록 누군가는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둘러 시작한 이유는 가난한 대학원생의 실천이 제 또래의 많은 졸업생들에게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유기성 동문은 학부 재학 중에 상당 금액을 사회에 기부한 경험이 있다. 친구들과 함께 4명이 영어공부법과 관련된 책을 집필했고, 책이 인기를 얻어 거둬들인 인세를 다문화 언어교육 센터에 기부했다. 당시 받은 인세는 1천5백만 원.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었지만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그 당시에 느꼈던 나눔에 대한 좋은 기억과 가치가 자연스럽게 장학기금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눔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경험해야 나중에 더 큰 기부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경험도 없던 이가 나이 들어 덕하고 뭔가를 실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세경영의 장학문화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되길 바랍니다.”

한편 유기성 동문은 2년간 대학원 생활을 마친 후 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작은 정성이 큰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김영수(경영 70)

졸업한 선배들이 모금해 지은 신축 상경대학 건물에서 공부했고, 나도 후배들을 위해 얼마 안 되지만 신축 경영대학 건물을 짓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후배들이 새로운 건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연세경영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수원(경영 70)

연세경영을 졸업했다는 것이 사회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동문들의 조그마한 정성은 경영대학 미래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쌓는 하나의 벽돌이 영원한 연세 경영대학 장성을 이룹니다. 세계 제일의 연세 경영대학! 우리 연세인의 힘으로! 우리 사랑, 서로 사랑, 연세 사랑, 학교 사랑! 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은 우리의 손으로!

정지혜(경영 97)

입학했을 당시 신축 건물이던 대우관에 자부심을 느끼며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후배들에게도 새로운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좋은 환경, 우리가 누렸던 자부심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탬 수 있다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재학생과 동문, 연세경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멋진 건물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수령(경영 98)

모교가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잊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모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제가 1998년도 입학했을 때 새 건물에서 공부하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몇 년 후 들어올 후배들도 제가 그때 가졌던 좋은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많은 동문들의 기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현(경영 02)

작년 건축 기금에 이어 올해도 약속하지만 작은 나눔을 생활화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강휘(경영 05)

사회에 나오니 연세경영이 그립습니다. 연세경영에서의 배움과 추억들이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중심을 잡는 지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세경영에서 받는 고마움을 꾸준한 기부를 통해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동문들의 모금으로 짓게 되는 경영관은 정말 의미가 큼니다. 모두 참여해 동문의 힘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연세경영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매일 보고 싶습니다.

전용환(경영 06)

연세경영을 항상 가슴속에 품으면서 대학생생활을 만끽했던 날들이 벌써 마무리되었다니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한 후에 대학생살이 많이 그립습니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언젠가는 꼭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동문으로서 제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연세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하겠습니다. 다짐을 가져봅니다. 또한 경영대학 구성원들이 학우고대하고 있는 경영관 완공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상규(MBA 2008)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아찔했고 어느 정도를 다쳤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짧은 시간 동안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갑자기 불편해진 몸 때문에 원망하고 후회도 해보았지만 희망을 찾게 되었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돈이지만 남을 위해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고, 작은 금액이지만 보상받은 보험금으로 모교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봄마다 백양로 벚꽃을 바라보며 학업에 매진하게 될 후배들을 생각합니다. 새로 지어질 경영관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후배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연세 경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동문들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으름가는 경영관이 빨리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윤형석(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 09)

경영관 신축에 대한 사랑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 저 또한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세경영을 사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은 저로서는 이번 기부에 함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신축된 경영관에서 공부와 학문 연구에 매진하는 것을 희망하기에 소액이지만 정성으로 매달 연세경영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박경준(MBA 2009)

약소하게나마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동문 모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지만, 한 번쯤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경영을 위한 뜻있는 경영관을 신축한다니 십시일반 동참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MBA 88기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저도 여유가 되면 더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조종래(MBA 2013)

모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모쪼록 신축이 잘 완공되어 더 많은 훌륭한 연세인 배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정민(MBA 2014)

저의 단기적 목표는 금융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장기적 목표는 사회 기여와 사회복지사업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EMBA 커리큘럼들이 저의 목표를 이루는 데 많은 영감과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세 EMBA는 국내 최고의 MBA 과정이고 지도 교수님 또한 매우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의 작은 성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5년 완공된 경영관에서 재학생과 동문들이 큰 꿈을 키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백기범(연세대학교 동서문재연구원 부장)

작지만 경영관 신축기금과 경영대학(원) 발전기금을 완납한 이유는 직전 학장인 박상용 교수님께서 토요일임에도 연세경영 동문 가족들을 초청해 소시지를 구워 대접하겠다는 말씀과, 현 박영렬 학장님이 Dean's Love Story를 통해 늘 감사하는 마음과 노력하는 열정에 대한 감동의 표현입니다. 존경받는 아름다운 경영인을 더 많이 배출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십시일반 모여라, 연세경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2013년 11월 27일 경영관 신축 기공식을 기념해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을 시작했다.

연세경영을 사랑하는 5,000명이 120만원씩(1년간 매월 10만원, 2년간 매월 5만원, 40개월 동안 3만원) 기부해

경영관 신축을 연세경영인의 대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지금까지 학부, MBA, AMP 동문을 비롯해, 교직원, 학부모, 가족, 부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캠페인 응원 메시지

신완 동문(상학 63)

이 캠페인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참 좋은 참여 방법을 제시합니다. 은퇴 후 유일한 영구 월정 수입원인 국민연금 수령계좌를 이용하면 고참 학번 동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최선미 경영대학 교수

알고 보면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받는 것이 당연했거나, 그럴 자격이 있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마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쯤은 잠깐 멈추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으로나마 되돌려 줄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원우(MBA 2013)

경영학의 산실인 경영관이 새로 신축된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경영관 건립으로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에게 자부심이 생길 것이고, '글로벌 인재들이 경영교육을 받기 위해 모여 들 것'이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 봅니다.

이영준 동문(경영 04)

졸업 후 모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았는데,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 매우 기쁩니다. 매달 작은 기부로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참 다

행이라 생각해요. 아직 2000년대 이후 졸업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 같은데, 부디 많이들 참여해 꼭 목표한 5,000명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제 동문(경영 77)

연세경영! 'TOGETHER, WE GO!'

이광철 학부모

한국을 이끌고 갈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데 열정과 헌신의 노력을 해주시는 경영대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부 사례도 있어요

대를 이은 기부

1995년 대우관 신축을 위해 부모님께서 소액을 기부했고, 그 아들인 경영 91학번 기대웅 동문이 경영관 신축을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부부 참여

남편의 회사에서 실시한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상금의 일부를 아내의 모교인 연세경영관 건축을 위해 기부했다. 연구를 통해 받은 시상금이기에 글로벌 리더 교육의 장인 경영관 신축에 사용되길 바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참여자 명단 (2014. 2. 28 기준)

참여 순서	이름	구분	참여 순서	이름	구분
1	박영렬	경영대학 교수	27	안지현	경영대학 행정팀
2	이호근	경영대학 교수	28	박재한	경영 06
3	김익찬	경영 72	29	김동훈	경영대학 교수
4	안병덕	경영 76	30	이승순	석사 06
5	김화중	경영 76	31	전기석	경영 74
6	이승하	경영 76	32	김태현	경영대학 교수
7	이희정	경영 71	33	심중섭	경영 61
8	정수원	경영 70	34	나원찬	경영 77
9	장덕흠	AMP 71기	35	안영빈	경제/경영 97
10	김만수	경영 77	36	김근수	경영 79
11	백유진-김호준	석박통합 12	37	이 결	경영 61
12	신 완	상학 63	38	박근태	사학 73
13	이영준	경영 04	39	윤장용	기획실 예산팀장
14	차기섭	경영대학 행정팀장	40	이재찬	상학 67
15	이하우	AMP 32기	41	박영암	경영 80
16	이종화	AMP 53기	42	안우철	경영 99
17	이광철	학부모	43	조정현	의학 74
18	김선숙	MBA 2006	44	박태원	경영 84
19	이연호	정치외교학 교수	45	정일영	경영 76
20	김광수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소장	46	최선미	경영대학 교수
21	윤영주	상남경영원 행정팀장	47	엄석중	MBA 2014
22	조정제	경영 77	48	오광성	경영 71
23	김수연	박사과정 13	49	곽형선	일반인
24	김성은	경영 74	50	박경민	경영대학 교수
25	김광수	MBA 2013	51	조석일	경영 76
26	임 일	경영대학 교수	52	이두원	경제학과 교수
			53	기대웅	경영 91

Dean's Love Story, 받아보고 계시나요?

2013년 4월 10일 Dean's Love Story를 시작했다. 동문, 재학생, 직원 등 전 연세경영 가족들은 매달 10일과 25일에 박영렬 학장이 띄우는 Dean's Love Story를 이메일로 받고 있다. 수신 대상자는 동문, 교수, 재학생, 직원 등 전 연세경영 가족으로 박영렬 학장이 해당 기간 동안의 모금 활동과 대학의 주요 이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메일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경영대학 대외협력실로 이메일을 등록하면 된다. (Tel. 02-2123-5445, ysb-edo@yonsei.ac.kr)



나눔을 실천하는 내리사랑의 전통

2014 Class Gift



2010년에 시작된 'Class Gift'는 졸업생들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해 신입생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문화로 연세경영만의 아름다운 내리사랑 캠페인이다. 학부 신입생들은 졸업하는 선배들이 1 대 1로 전하는 주옥같은 메시지와 추천 도서를 받고, MBA와 석·박사 신입생들은 메시지와 함께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멋진 볼펜을 받는다. 더불어 'Class Gift'에 참여하는 모든 졸업생들은 졸업 기념품을 받게 된다. 2013년에 진행된 2014 Class Gift에는 총 197명의 졸업생이 참여해 6,961,888원의 기금이 마련되었다.

졸업생 선배들이 신입생 후배에게 전하는 주옥같은 메시지

김현해(경영 05) 학과에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무엇보다 학과생활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연세경영의 미래입니다.

노유진(경영 08)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멋진 후배가 되길 바랍니다.

윤형식(경영 05) 경쟁은 치열하게, 노력은 절실하게. 거기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되는 연세경영인이 되길.

하주영(경영 09)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황지환(경영 10)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를 배우는 대학생활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김미영(MBA 2012) "No one is in charge of your happiness but you." 항상 성실하게,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면 무슨 일이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현호(MBA 2012) 지금 이 순간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껏 열심히 배우고 즐기길 바랍니다.

박희열(MBA 2012) 비록 쉽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겠지만, 후회 없이 열정을 태우길 바라며...

양재훈(MBA 2012) 연세경영의 울타리에서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상현(MBA 2012) MBA가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과 동시에 더욱 여유롭고 풍성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진(MBA 2012) 초심과 진정성 잃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임신욱(MBA 2012) Carpe Diem.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매 순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미련이 남지 않도록 열정을 쏟아 부으세요.

정진호(MBA 2012) 연세경영에서 열정과 창의력, 소통을 배우는 멋진 예비경영자가 되기 바랍니다.

최준의(MBA 2012)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성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서근영(박사 2010)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고, 지금은 중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는 일에는 몰두하지 않는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성호(석사 2012) 즐거움, 열정, 노력, 자절, 책임, 성취 등 대학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즐기시길.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연세경영인이 되길 바랍니다.

Class Gift를 받은 신입생들의 감사의 글

김혜영(경영 13) "이강휘(경영 05) 선배님께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작년 3월 대학에 갓 입학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였던 저에게 이 책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제 꿈을 어떻게 대해

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윤진영(경영 13) "김동민(경영 09) 선배님으로부터 도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 물질적인 것들 이외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모든 것이 새로웠던 시기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사회에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책을 가까이하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혜림(경영 13) "'Class Gift' 소식을 듣고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저만을 위해 준비된 소중한 책 한 권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무 살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에는 경영대학의 3대 가치인 Creativity, Integrity, Global Perspective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책에서 얻은 인상적인 일화들을 문득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이 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느끼며 놀라곤 합니다."

김광수(EMBA 2013) "수업을 받으러 강의실에 들어서자 선물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졸업을 해도 후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대개 졸업하면 학교나 후배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는 데, One MBA라는 기치 아래 연결 고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연세대 MBA 전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범석(MBA 2013) "MBA 시작을 장식해 준 것은 바로 'Class Gift'였습니다. 아직 적응이 만만치 않았던 어느 날, 수업 후에 제 이름이 새겨진 펜과 멋진 문구를 함께 받았을 때 연세 MBA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문득 감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배움의 끝에서 많은 연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주셨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물류를 통해 사회에 헌신해온
한림마린서비스가 고객님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HANLIM

2012년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수상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장 수상

(주)한림마린서비스 : 국제운송전문, 항공해상운송, 위험물, 특송

(주)한림종합물류 : 수출입 컨테이너운송, LCL 운송전문

(주)한림티앤씨 : 수입 원단과 원사취급 : 각종 T/C, INTERLOCK, PU BASE, 100% CTTN, POLYESTER, ACRYLIC YARN 등.



(주)한림마린서비스

서울 본사 :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90, 1001호 (구로동 STX W-Tower)
T. 02.322.2220 F. 02.322.0115
부산사무소 : T. 051.468.4897 F. 051.468.4867

(주)한림종합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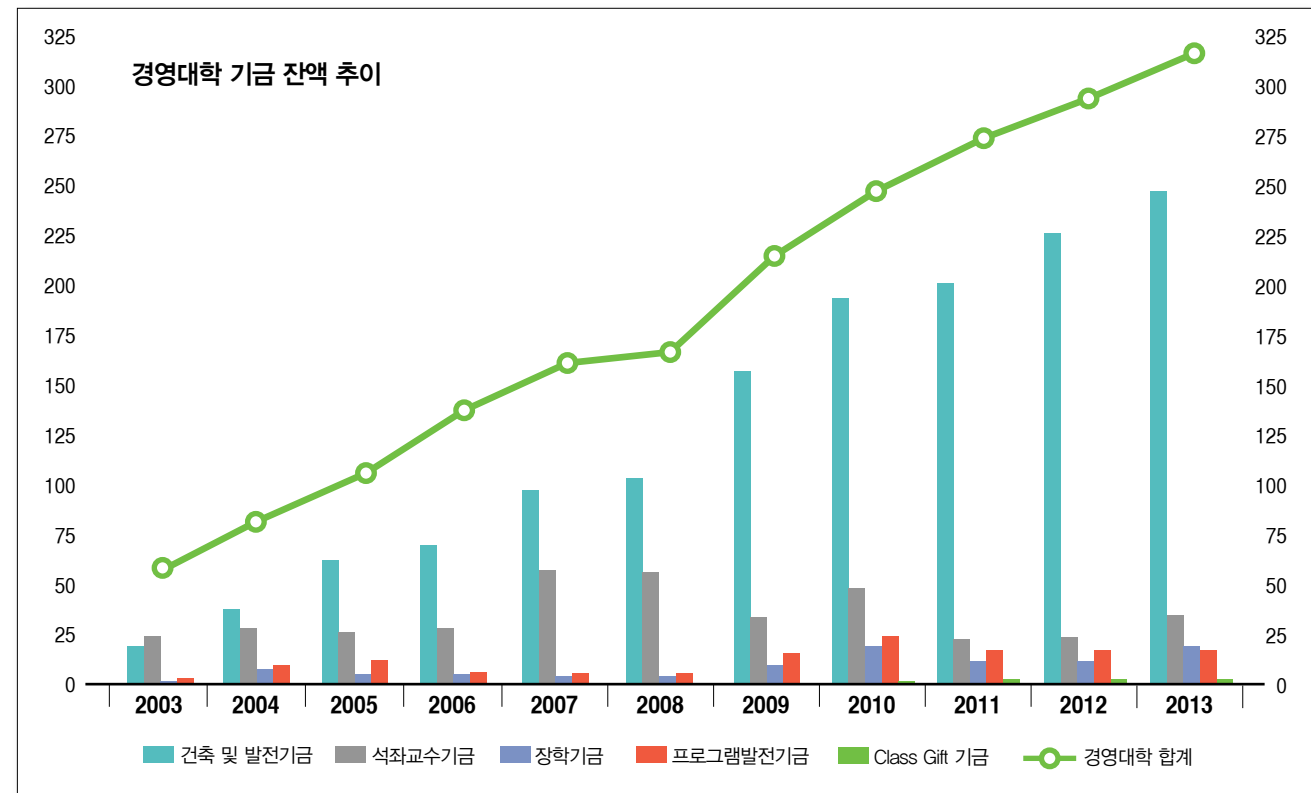
서울 본사 :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90, 1001호 (구로동 STX W-Tower)
T. 02.332.8930 F. 02.322.3814
의왕사무소 : 경기도 의왕시 창달로 39 (이동: 경인ICD 제타터널 3군)
T. 031.674.4535 F. 031.674.4541

(주)한림티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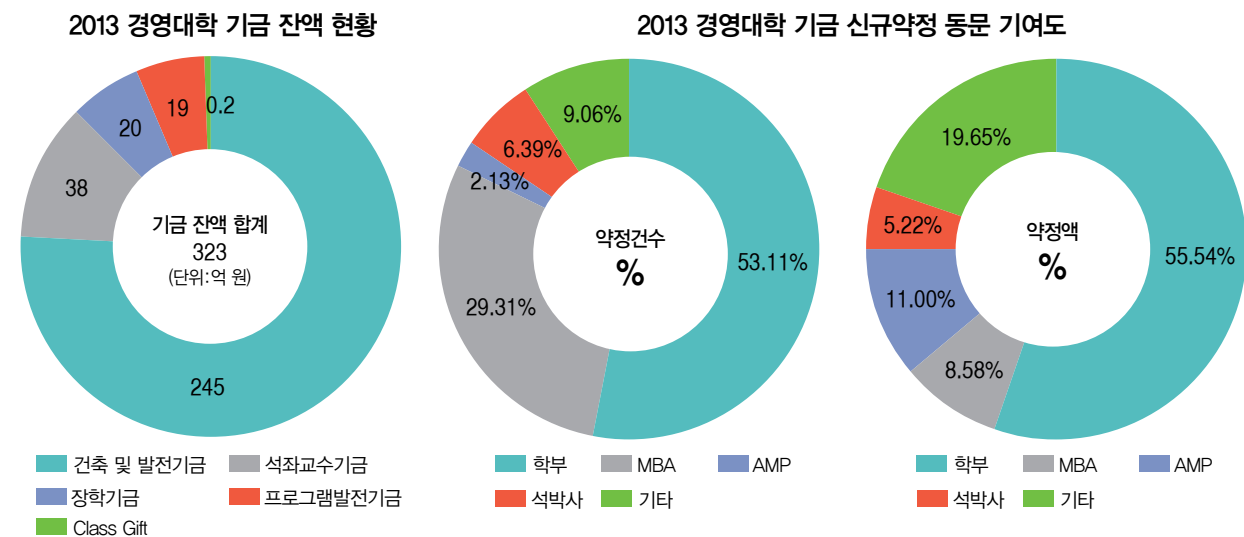
서울본사 :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90, 1001호 (구로동 STX W-Tower)
T. 02.322.3815 F. 02.322.4838
안양창고 : T. 031.674.2050 F. 031.674.0450

연세경영을 바꾸는 나눔의 철학

경영대학 기금 현황



2014년 2월 28일 기준 / 단위 : 억 원



건축재원 기금

2013학년도 건축재원 잔액은 245억원이며, 아모레퍼시픽 입금 예정액 84억과 1억 이상 고액기부자 약정 잔액 중 입금 예정액 약 40억을 포함하면 총 370억원의 건축재원 기금이 조성되었다. 2014년 1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영관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최초의 경영관 신축과 건물 조성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은 총 550억원으로 모든 연세경영인들의 마음을 모아 180억원의 추가 기금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2013년도에 심장식(경영 73), 정석주(상학 59) 동문, 장정훈 연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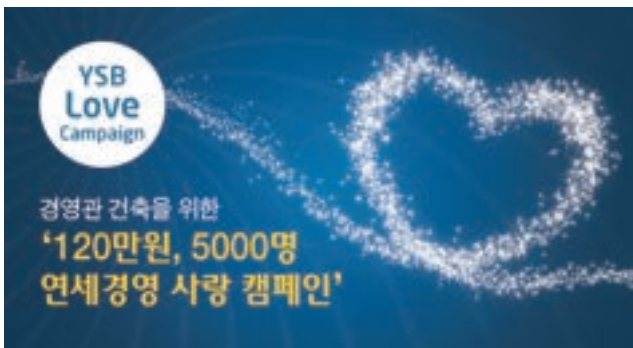
건축재원 기금 1억원 이상 약정 고액기부자

기부자명	구 분	직 책
고병현	경영 64	(주)금비 회장
권은영	경영 75	(주)네오티스 대표이사
김선영		
김승제	MBA 2007/AMP 50기	이스타코 회장
김영숙	AMP 55기	선일금고제작 대표이사 사장
김영진	경영 75	(주)한독 대표이사 회장
김정수	경영 69	제이에스앤에프 대표이사 회장
김효준	MBA 1998	BMW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남궁덕	AMP 57기	(주)SR건설 대표이사
박상용	경영 69	연세대학교 교수
박지원	경영 84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서경배	경영 81	(주)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회장
서정락	MBA 2003	(주)장풍 대표이사 회장
선종구	경영 68	더 플레이어스 회장
손영식	AMP 17기	조양(주) 회장
송승철	경영 76	한불모터스 대표이사
송영희	MBA 2004	더존산업개발 회장
송 자	상학 55	前 연세대학교 총장
심계원	MBA 1999	(주)동산실업 대표이사
심장식	경영 73	확인파트너스 회장
안용찬	경영 77	애경그룹 부회장
오재갑	AMP 52기	삼일방수기업(주) 대표이사
윤형근	경영 82	SRC 대표
이강만	경영 74	헬름어드바이저즈 대표
이관식	경영 66	올림픽스포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기를	상과 43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교 객원교수가 1억원 이상의 건축 기금을 회사하였다. 그리고 김기영 명예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연세생산전략연구회가 건축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하였다. 학부 동아리인 GMT(Global Management Track)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GMT 명의로 2천만원을 건축기금으로 기탁하였으며, Executive MBA(EMBA) 2기 및 3기 졸업생들이 각각 4천2백만원, 4천2백 5십만원을 기탁하여 EMBA 1기의 뒤를 이어 모교의 발전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가 3천만원의 건축기금을 선뜻 내놓았고, AMP 75기와 76기가 각 5천만원의 기탁금을 출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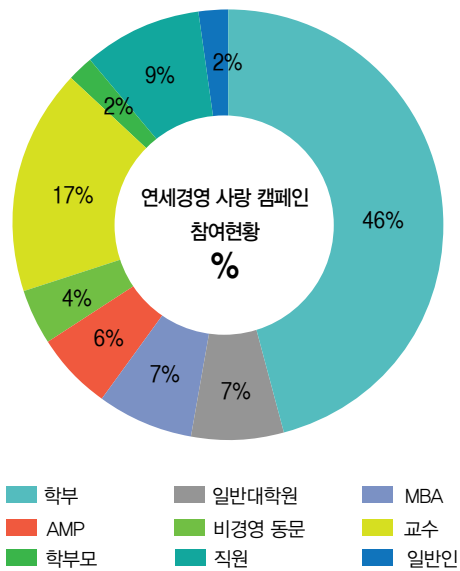
(가나다 순, 기간 : 2001.03.01~2014.02.28)

기부자명	구 분	직 책
이동준	MBA 1978	(주)코리아골프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두원	상학 58	한양철강공업 회장
이문일	경영 86	한국기술산업 대표이사
이병무	경영 59	아세아그룹 회장
이재범	AMP 56기	대지철강(주) 대표이사
이재용	경영 83	쌍용제지(주) 회장
임부자	AMP 43기	(주)광산 대표이사
장정훈		경영대학 객원교수 겸 종근당 회장
장홍선	경영 58	근화제약, (주)극동유화 대표이사 회장
정구현		경영대학 명예교수 겸 KAIST 초빙교수
정석주	상학 59	양지산업 회장
최도석	경영 70	前 삼성카드 부회장
황재광	MBA 2001	에프에스코리아 대표이사
AMP 73기		
AMP 총동창회		
EMBA 1기		
경영 80학번 동교회		
경영 81학번 동교회		
경영 82학번 동교회		
경영 83학번 동교회		
경영 84학번 동교회		
故 임익순 명예교수 가족		
연세생산전략연구회		
국민은행		
김구재단		
(주)씨씨엠프라자		



경영대학에서는 경영관 신축 모금 활동의 일환으로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연세경영을 사랑 하는 5,000명이 120만원씩(1년간 매월 10만원씩, 2년간 매월 5만원씩, 40개월 동안 3만원씩)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경영관 신축을 동문,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등 연세경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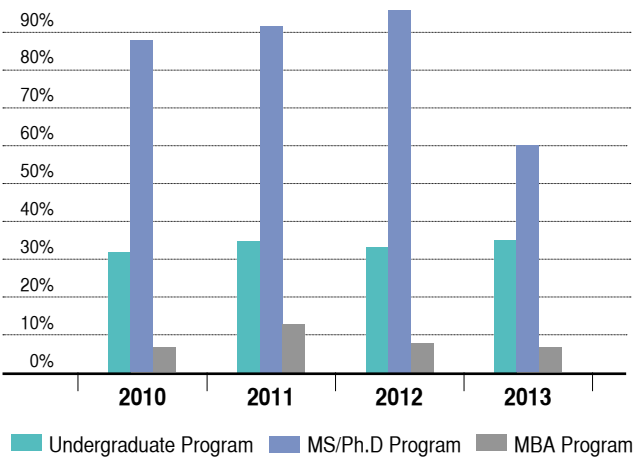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참여현황 (2014.02.28기준)



장학기금

연세경영 재학생들은 2013년도에 총 72.8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학위별로 학부생들에게 약 48억 8천만원, MBA 8억, 석박사 16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1인당 장학금액은 학부는 263만원, MBA는 168만원, 그리고 석박사는 611만원이었다.

등록금 대비 1인당 장학금액 비율



1986년부터 매 학기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이두원(상학 58, 한양철강공업 회장) 동문이 올해도 1천만을 후원했다. 이두원 회장의 아름다운 뜻을 되새기기 위해 2013년 11월 11일 '이두원 장학금 기탁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모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후배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이 회장의 깊은 연세경영 사랑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정갑영 총장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관계자들과 이두원 장학금 수혜자들이 모였다. 특히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김지현(경영 94) 교수가 이두원 장학금 수혜자로 참석해 그 동안 이두원 회장의 도움을 받은 장학생들의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전해 이두원 동문의 아름다운 뜻이 후배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된다. 경영전문대학원 EMBA 3기가 졸업을 앞두고 장학금 3천5백만원을 기탁해 '경영전문대학원EMBA 장학기금'이 신규로 개설되었다. 이 기금은 향후 학부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될 것이다. 미국 Blackrock사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찬 동문(석사 98) 이 지



Annual Report 후원 기업



난해에 이어 올해도 5천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번에 기탁한 기부금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종필 재학생(박사 09)에게 수여되어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07년부터 최희규(경영 83, ASKNBID 대표) 동문이 선발하고 있는 세경장학금의 수혜자인 유기성(경영 06) 학생이 2013년 8월 졸업하며 장학금 240만원을 기부했다. "세경장학생들이 훗날 사회에 나와 후배들에게 세경장학금보다 더 큰 마음을 전하며,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연세경영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최희규 동문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다.

'재학생 모두가 장학생이 되는 그 날까지'를 모토로 시작된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해 올해에도 많은 동문들이 동참했다. 2013년도에는 3억원이 입금되었다. 매년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심장식(경영 73, 화인파트너스 회장) 동문이 2013년에도 어김없이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8천만원을 기부하며 후배들을 위한 내리사랑에 앞장섰다.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산하 연경장학회가 블루버터플라이 장학금 15억 4천 4백만원을 모교에 기탁하였다. 이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하기 위해 2013년 6월 14일 김영진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들이 연세대학교 정갑영 총장을 방문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 회장은 "요즘 등록금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연세대학교 상경경영 대학 후배들이 학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선배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전했다.



정갑영 총장과 김영진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왼쪽)

블루버터플라이 4천만원 이상 약정 고액 기부자

기부자명	구 분	직 책
강호찬	경영 95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고은봉	경영 66	진서 대표이사 사장
구본길	경영 76	LF 대표이사 회장
구재상	경영 83	케이클라비스투자자문 대표이사
김영진	경영 75	(주)한독 대표이사 회장
김정수	경영 69	제이에스엔에프 대표이사 회장
라제훈	경영 69	신기그룹 회장
서창우	경영 78	한국파파존스 대표이사
신용한	경영 88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심장식	경영 73	화인파트너스 회장
안용찬	경영 77	애경(주) 부회장
오광성	경영 71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소장
이재익	경영 69	(주)PLES 대표
전찬민	경영 86	(주)팜클 대표
정용화	경영 66	(주)주영 대표이사 사장
한영재	경영 73	노루홀딩스 회장

(가나다 순, 2014. 2. 28. 기준)

uGET 프로그램 기업 후원

글로벌 산학 프로그램인 uGET 활동을 위해 총 1억4천만원을 후원한 기업 및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이랜드,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하나금융지주, 히트콤 등 총 6개다. 이들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활용하며,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넓혔다.

Annual Report 발간 후원

〈2012 Annual Report〉제작을 위해 EMBA에 재학 중인 원우 기업들이 후원, 광고 협찬하였다. 참여 기업은 대우가스보일러(고인홍 EMBA 3기), 광동한방병원(이강남 EMBA 3기), 명화네트(조중래 EMBA 3기), 천호식품(김지안 EMBA 4기), 한림마린서비스(박현훈 EMBA 4기), 한화투자증권(이명희 EMBA 3기), 한화손해보험(최종훈 EMBA 3기), KD 파워(김임배 EMBA 3기), KT(김철기 EMBA 3기) 총 9개이다.

연세경영 100주년, 새로운 100년의 시작

1915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가 Chosen Christian College (상과 등 5개 학과)라는 이름으로 개교, 2년 후인 1917년 한국 유일의 전문학교인 사립 연희전문학교를 발족



1946

상학원(상학과 180명, 경제학과 120명) 등 4학원 체제로 연세대학교 종합대학 설립인가(국내 최초로 남녀공학 시작)



1996

상경관(대우관) 건립



2003

상경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분리해 경영대학으로 출범



2008

국내 최초 AACSB(국제) 및 KABEA(한국) 인증 동시 획득



2015

연세경영 100주년. 최초의 독립 경영관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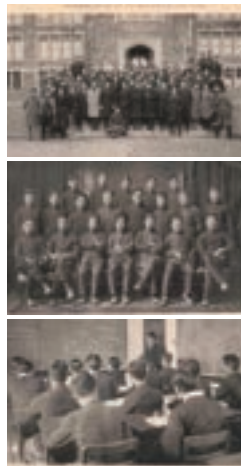
1919

상과 1회 졸업생 10명 배출



1929

학생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상과연구실 개소, 2년 후인 1931년 상과를 증원해 60명 학생 모집



1950

상학원을 상경대학으로 개칭

1957

대한기술교육원조계약 체결로 한국 최초로 미국 경영교육을 받아들이는 획기적 계기 마련

1958

워싱턴대학교 경영학 프로젝트 도입

1965

경영대학원 신설 및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개설

1968

상학과를 경영학과로 통합 (입학정원 640명)

1969

경영학 교실단 준공

1976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신설



1999

영어로 강의하는 GLOBAL MBA 국내 최초 과정 개설, 경영대학원 부설 상남경영원 개원



2006

경영전문대학원 출범



2010

Corporate MBA 파이낸셜 타임즈 선정 국내 최초 세계 100대 MBA

2011

Global MBA 이코노미스트 선정 국내 최초 세계 100대 MBA



2012

EQUIS 인증 획득



연세경영 100주년 프로그램

준비사업

- 연세경영 100주년 홈커밍 행사
- 국제심포지엄
- 연세경영 100년사 집필
- 한국 기업 분석 도서 발간
- International Case Competition
- 연세 CEO 100인 선정
- 연세 MBA 50인 선정
- 대를 잇는 연세경영 가족 찾기

Notice

대를 잇는 연세경영 가족 찾기

연세와 연세경영의 품에서 함께 한 가족들을 찾습니다. 성함과 전공 및 학번, 관계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경영 100주년 행사에 초청하고 연세경영 100년 역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연세경영 100년사 집필 자료 수집

연세경영 100년사 집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교과서, 강의노트, 참고서, 학생증, 졸업증서 등 집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복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제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대우관 218호
Tel. 02-2123-5445, Fax. 02-2123-8639,
Email : ysb-edo@yonsei.ac.kr

졸업 50주년 59학번 및 25주년 84학번 재상봉행사

모교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하다!

2013년 졸업 50주년 59학번, 25주년 84학번 동문들이 2013년 5월 11일 연세대 창립기념일에 모교를 찾았다.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문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재상봉 행사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한 모금활동이 상당히 활발했다. 59학번은 총 4억 9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84학번은 1억5천만 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속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59학번 동문

59학번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졌다. 정석주 동문(상학 59)이 2013년 4월 경영대학 건물신축기금 1억 원, 백양로 프로젝트 1천만 원을 미리 기탁했으며, 5월 초 이병무 동문(경영 59, 아세아시멘트 회장)이 경영대학 건물신축기금과 백양로 프로젝트로 각각 5천만 원을, 한상만 동문(경제 59, 유경산업 회장)이 백양로 프로젝트로 1억 원을 기탁했다. 또한 59년 입학동창회 일동으로 경영대학 건물신축기금 약 4천6백만 원, 백양로 프로젝트와 경제학과 장학기금으로 각각 1백만 원, 그리고 세브란스 치매예방 R&D 연구비로 5천만 원 등 약 9천8백만 원을 기탁했다. 총 금액은 4억9백만 원에 이르렀다.

84학번은 59학번 선배들의 기탁 소식을 접하고 더욱 분발해 2013년도 말까지 경영관 신축기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0년 박지원 동문(경영 84,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5억 원을 기탁해, 이번 84 동기회 단체로 기탁한 금액을 합치면 6억5천만 원에 이른다.

59학번 회장 송태연 동문은 “연세 캠퍼스에서 처음 만난 뒤 어느덧 50년이 흘렀다. 참으로 반갑다.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84학번 대표인 정영동 동문은 “59학번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재상봉 행사를 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다. 앞서 송태연 선배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저 반갑다는 한 마디만 더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재상봉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의 방문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노영순(경영 59), 박성철(경영 59), 신용철(경영 59), 윤세화(경영 59), 정영일(경영 59), 그리고 양진수(경영 84) 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몸이 불편하지만 50년 만에 동기들을 본다는 설렘으로 모교를 찾은 강준석(상학 59), 김종수(경제 59) 동문님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25년만에 연세경영을 찾은 84학번 동문

59학번들의 한 말씀

강준석(상학 59)

“그동안 자주 찾아오지 못한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교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기쁘고, 대신 앞으로 자주 찾아와 동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형창(상학 59)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모두들 많이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호(상학 59)

“뜻 깊은 이 날을 맞이하여 감개가 무량합니다. 훌륭한 학교로 발전하여 더욱 기쁩니다.”

김흥민(경영 59)

“재학 당시 응원단장으로 활동했고, 지금의 독수리상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자랑스럽습니다.”

84학번들의 한 말씀

김명섭(경영 84)

“25주년 행사를 개최해준 학교 측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그득해집니다. 25년 전 저는 꿈만 보고 앞으로만 질주해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밑거름이 되어준 연세경영! 사랑합니다.”

노명규(경영 84)

“재상봉 행사 덕분에 오랜만에 친구들을 보니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좋습니다. 제가 졸업한 뒤로 학교도 점점 더 발전하는 모교를 보니 뿌듯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영범(경영 84)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반짝거리는 눈빛 하나로 무서울 것 없이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던 모교에 돌아오니 예전의 눈빛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SB A/S 특강, 그리고 아주 특별한 뒤풀이

연세경영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졸업 동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YSB A/S(After School) 특강'이 횡수를 거듭할수록 동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연을 듣기 위해 방문한 동문들은 좋은 강의를 마련해 준 모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후원을 보내고 있다. 후원금은 전액 발전기금으로 기탁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1회 특강 후에는 EMBA 동문회가 하이트 진로의 협찬을 받아 특강 뒤풀이를 마련했다. 동문들은 강연장에서 서로 눈인사만 나누다가 뒤풀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14회 강연자로 나선 경영대학 김준석 교수

경영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최고 수준의 강의

2013년 A/S 특강의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3월 27일에 개최된 상경대학 성태윤 교수의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읽는 세계경제' 강연이었다.

성태윤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흐름에 대한 열광을 통해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를 야기한 구조적 문제는 바로 "유럽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유로화"에 있으며, 그것이 "기본적인 경제 메카니즘의 왜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4월에 진행된 '시장을 선도하는 마케팅, 그 14가지 키워드' 특강에서 경영대학 김영찬 교수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의 마켓 상황에서 성공하는 마케팅을 위해선 전략, 전략적 사고, 그리고 전략적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스타벅스, 보드카 애플루트, 애플, 캐러웨이, Volvo, P&G, 삼성전자 등 우리 주변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의 예를 들어 이해를 높였다. 그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마케팅, 정도를 걷는 마케팅, 독심 있는 마케팅 이 세 가지만은 잊지를 말아 달라."는 마케팅 철학으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5월에 있었던 특강에서 사학과 도현철 교수는 '한국사가 들려주는 어느 탐욕적 지식인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고려 말 개혁적 성리학자에서 탐욕스러운 관료로 변절했던 염흥방을 통해 지식인의 책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염흥방이 현실적인 이익에 매달리고 관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



상경대학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가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리는 것을 보면서 소신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느 시대이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6월 강의를 맡은 경영대학 양혁승 교수는 1990년대 전후로 기술적으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에 의해 초-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 경영 환경 측면에서 세기적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존의 경쟁 원천에서는 한계가 드러났고, 전략경영 차원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희소하며, 모방이 어렵고, 비대체성을 가진 새로운 '지속 가능한 비교우위'를 찾게 되면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기반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인사경영 패러다임으로, "기업의 복잡화를 개선"함을 통해 "혁신 글로벌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시선은 넓게 사고는 깊게

9월 25일 정동일 교수는 '전략적 사고를 통한 미래지향적 리더십 개발'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국민 소주라 할 수 있는 '참이슬'의 경쟁자는 과연 후발주자 '처음처럼' 입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같은 산업 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서로 경쟁했지만, 이제 산업 간의 틀이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현대사회의 트렌드를 설명했다.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는 졸업 동문들

정 교수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고안한 '기업 적응성 지수'를 설명하면서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정의 효율성 및 조직 구조의 유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10월 30일 강의를 펼친 김준석 교수는 '인터넷의 시장의 변화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시장 변화의 핵심에는 '혁신'이 있다는 사실을 레고사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역대 최고의 네트워크 형성 미디어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 두뇌와 비유했다. 인간 두뇌의 다양한 뉴런들이 형성한 네트워크가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를 가능케 하는 것처럼, 실제 경영도 다양한 네트워크망의 활용으로 혁신 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11월 27일에 있었던 '회복탄력성과 그릿' 강의에서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는 다양한 고난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여러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긍정적인 사고로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능력인 이른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회복탄력성'이란 '마음의 근력'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개념이며, 긍정적인 사고로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능력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인간의 지능, 능력은 자동차의 마력처럼 처음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열정과 자기 동기력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 보다는 원인이며,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권리가 아닌 의무로 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열강중인 경영대학 정동일 교수

아주 특별한 뒤풀이

한편 2013년 6월 제10회 YSB A/S 특강 후에는 소박한 'Beer Party'가 열렸다. 배움의 열정으로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듣는 동문들이 피곤함을 달래고 교류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자 로비에 마련된 맥주를 보고는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양모 두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 뒤풀이는 연세대 Executive MBA가 마련했고, 하이트 진로가 맥주를 협찬했다. 또한 매회 특강을 준비하는 로비 데스크에는 후원함을 세워 강의를 듣는 동문들의 따뜻한 정성의 손길들을 받기도 했다. 매년 이름 없이 베풀어 준 동문들의 후원금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으로 적립되었다.



80학번 모교에서 동기회 모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80학번 동기회는 2013년 3월 24일 대우관에서 동기회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박영렬 경영대학 학장은 “모교에서 진행하는 동기회 행사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건넸다. 특히 박 학장은 이러한 모임이 우리 연세 경영에서 긍정적인 촉진제로 작용해 다른 학번에도 바이러스처럼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태극한 강의가 이어지면서 동기회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의는 은퇴 직전을 맞은 동문들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목적으로, “2013 부자들의 자산관리 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 등 두 주제로 나눠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두 강연 모두 동문인 백승엽 상무(경영 80, 동양자산운용), 이태호 전무(경영 80, 삼일회계법인)가 각각 이끌어 주목을 끌었다. 이후에는 신촌 피자헛으로 옮겨 와인과 피자를 먹으며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행사에 참석한 신용삼(경영 80) 동문은 “지금까지 다들 직장생활을 하는 제1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이 자리를 통해 서로가 사회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시각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행복한 인생을 함께 설계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영 80학번 동기회장 김무환(경영 80) 동문은 “학교에 오면 늘 새롭고 즐거운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동기회 행사를 모교에서 하면 학교 정취도 느끼고 후배들의 얼굴도 볼 수 있어 좋다.”며 “2년 전에도 모교에서 동기회 행사를 했지만, 이번 모임에 경영대학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표해주어 정말 놀라웠고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연세경영 80년대 학번 가을 모임

연세대 경영대학은 2013년 10월 15일 ‘연세경영 80년대 학번 가을 모임’을 한불모터스 사옥 옥상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분과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이 행사는 송승철 동문(경영 76, 한불모터스 대표)이 장소 제공부터 음식, 여흥과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후원했다.

80년대 학번은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막강 동문들의 확장된 네트워크가 모교와 동문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데서 행사가 기획되었다. 행사를 후원한 송승철 동문은 “곶은 날씨에 어려운 걸음을 하신 만큼 오늘 이 만남이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승보 동창회 운영위원장(응통 75)은 “동창회 입장에서 80년대 학번이 중심”이라며 “동창회가 기획했어야 하는 행사를 경영대학에서 먼저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동기회장의 인사도 뒤따랐다. 이정선 동문(경영 81)은 “평소에 동기회가 활성화되어 있어 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영관 신축을 위해 81 동기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모교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86학번 동문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천택 동문(경영 86)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연세경영인이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어 늘 모교에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이날 행사에는 참석을 신청한 60여 명의 동문들이 모두 모여 80년대 학번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80년대 학번이 활발히 활동해야 동문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랜 만에 만난 동기들은 삼삼오오 모여 근황을 얘기하고 옛 추억들을 되새기기도 했다.

후배 멘토링을 위한 동문 선배들의 한결 같은 사랑

연세대 경영대학은 2013년 3월 30일 2013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을 열었다. 바로 ‘2013 신입생 환영식 및 동문 멘토링’ 행사가 그것이다. 2008년 시작된 신입생 동문 멘토링은 경영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동 실행 결과에 따르면 1학년 대학생활동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로 동문 멘토링이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상당할 정도로 동문 멘토링은 신입생에게 ‘감동’ 그 자체로 다가가고 있다.

연세경영 신입생 동문 멘토링은 동문 선배 2~3명이 10여 명의 신입생 멘토가 되어 학교생활, 인생설계 등을 조언하며, 신입생들이 건전한 인재로 자라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3 동문 멘토링에는 기업, 정부 등 국내 유수의 조직에서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동문 약 100여 명이 신입생들의 멘토로 나섰다.

오상진 아나운서(경영 98)가 진행한 멘토링 발대식은 1부 신입생 환영식 이후 멘토들의 입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자리에 앉아 있던 신입생들은 동창회의 깃발 아래 입장하는 멘토들을 보며 ‘연세경영은 하나!’라는 진한 감동을 느꼈다. 이어서는 김영진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경영 75)이 마이크를 잡고 대표 멘토들을 소개했다.

송자 전 총장(상학 55), 정창영 전 총장(경제 63), 김창근 SUPEX 추구협회의 회장 겸 SK이노베이션 회장(경영 68), 김정수 제이에스앤에프 회장(경영 69),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경영 70),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경영 74) 등이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멘토링에 함께 자리 하지 못한 고병헌 금비 심화왕관 회장(상학 64)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경영 81)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멘토 멘티가 조별로 나란히 청중석에 앉아 함께 ‘연경/연상 갓 토크’로 지켜보며 세대를 뛰어 넘는 공감을 나누었다. 그리고 응원단과 함께 한 시간에서는 어깨동무를 한 채 아카라카 구호를 외치고 ‘사랑한다 연세’를 부르며 멘토-멘티 간의 만남을 더욱 돈독히 했다.

‘연경리더스포럼’, 후배들에게 통찰력을 전달

‘연경리더스포럼’은 매년 2학기 개설되는 수업이다. 이는 산업계 리더 강의를 통해 ‘Creative Leadership’을 가진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직군별 멘토링을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는데 교육 목표가 있다.

2013년 이 포럼에서는 구학서(경제 66, 신세계 회장), 최홍식(경영 71, 하나금융지주 사장), 구분걸(경영 76, LG패션 회장), 권승화(경영 76, 언스트앤영 대표), 안병덕(경영 76, 코오롱글로벌 사장), 이병남(경영 82, Boston Consulting Group 대표) 동문이 동참해 후배들에게 산업과 기업 현장 그리고 삶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윤여철 동문 특강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연세대 경영대학의 많은 동문들이 사회 각계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경영 72)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윤 부회장은 그룹 내에서 상무에서 사장까지 2년도 걸리지 않은 입지전적 인물. 2013년 11월 28일 연세대 경영대학은 윤 부회장을 초청해 ‘현대자동차의 성공요인과 미래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특강을 마련했다.

윤여철 부회장은 “현대자동차는 1967년 설립 이후, 고유의 모델과 고유 엔진을 보유한 글로벌 톱 5 자동차 회사이다. 품질 경영을 강조하며 지난 10년간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성공 요인에 대해 조기 글로벌화, 품질경영을 비롯해, 비용과 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생산비 절감, 생산기지 세계화 등을 언급하며 “현대자동차는 각 세계에 균형적인 지역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자동차 가격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세제 등이 조금씩 달라 국가 간 자동차 가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0학번 모교에서 동기회 모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80년대 학번 가을 모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입생 동문멘토링



윤여철 동문 특강

더 큰 세상을 향한 눈부신 도전

멀리 내다보고 준비한다. 오늘의 환경보다는 내일의 가치를 생각한다. YSB가 만들어낸 더 큰 도전과 눈부신 성과는 100년 역사 내내 이룬 노후이다. 한 걸음 먼저, 한 차원 높게 미래로 다가서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 양성과 창조적 가치 탐구. YSB가 준비하는 미래가 더욱 풍요로운 이유다.

글로벌 산학 프로젝트 uGET



2013년도 uGET(undergraduate Glocal Experience Trip) 프로그램에 9기 10개 팀과 9기 하반기 2팀이 선발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특히 9기는 연세대 창업지원단의 후원으로 창업 기업인 히트콤이 후원기업으로 참여해 주목받았다. 또한 연세대 학술 동아리 JSC(Junior Scholar Club)가 학회 지원으로 3팀을 선발해 각각 미국, 스웨덴, 이스라엘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조건 벤치마킹 사례연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청년 창업의 중요성이 uGET 프로그램에도 반영된 것. uGET9기에는 총 10개 팀, 35명의 학생들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등 총 8개국으로 파견되었다.

uGET 9기 하반기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했다. 한국 학생 4명으로만 이루어진 기존 uGET과 달리, 한국인 학생 2명과 외국인 2~4명이 함께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이름 하여 'uGET_Global'. 이랜드를 통해 중국에 파견된 2개 팀에는 이랜드에 취업이 확정된 중국 현지 학생들이 각각 포함되어 훨씬 알찬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uGET은 연세대 경영대학 Creative Leadership의 대표 프로그램이며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해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problem-based-learning의 프로젝트 활동이다. 이는 학생에게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도전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uGET은 2008년 여름 1기를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10기 총 112개 팀, 430명이 참여했다.

Yonsei-CMC Leadership Program, 린덴바움뮤직 남북오케스트라 구축 경영컨설팅

2011년 시작되어 2013년까지 3년째 진행되는 Yonsei-CMC Leadership Program이 2013년 6월 26일 시작해 7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예년과 비교해 더욱 눈길을 끈 것은 기업 프로젝트. 학생들은 린덴바움뮤직을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수행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회는 2013년 7월 31일 연세대 상남경영원 오크룸에서 있었다. 발표에 앞서 특별초청 인사인 판문점스위스중립국위원회의 우르스거버 장군이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다섯 개 조로 나뉜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CSR 위탁 모델, 음악 축제 대신 리얼리티 쇼 제작, 수익구조 다각화, 남한과 북한의 평화 콘서트 제안,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5개년 계획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지도한 연세대 경영대학 신현한 교수(재무 전공)는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학생들의 제안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정치 경제적으로도 임팩트가 있는 사례를 풀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한 CMC의 멘프레드 카일 교수는 "비슷한 분단 상황에 놓여 있던 독일에서 온 저에게 이 주제는 무척 흥미로웠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교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최종 발표를 마친 학생들의 감동도 남달랐다. 양민주(경영 09)학생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프로젝트에 웃고 울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NUS 학생들과 창업 아이디어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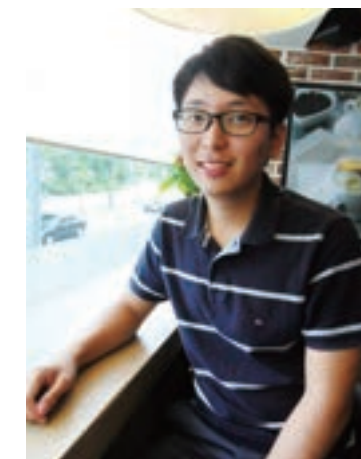
연세대 경영대학은 2013년 7월 25일, NUS iLEAD(National of Singapore innovative Local Enterprise Achiever Development) 프로그램 이수한 21명과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미 창업한 스타트업의 창업 사례들을 발표하고 NUS iLEAD 프로그램 이수 학생들 3팀이 자신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즉, 스타트업 기업은 싱가포르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NUS 학생들은 앞선 길을 가고 있는 창업자들로부터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연세창업지원단 소속 3개 스타트업 기업의 순서로, 원거리호 서비스인 시니어 무브먼트마일리지(Senior movement mileage) 프로그램, 스마트 호신용 스프레이, 헬스케어 어플 'Design Your Body'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NUS 학생들은 4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Lost book'은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물건의 구체적인 특징과 장소에 대해 알릴 수 있게 하는 모델이고, 'Baby touch'는 맛



별이 부부가 아이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다. 메모 공유, 메시지 알림, 아이돌 본 시간 등 다양한 기능으로 부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걸음 보조 기구 개발인 'Innocare'는 기존 보조기구가 바퀴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넘어지기 쉬운 점을 보완하여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Browsify'는 패션 쇼핑몰의 상품정보를 온라인 브로셔로 만들어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고 어플 내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니어 무브먼트마일리지를 발표한 원준호(경영 06, 커무브 대표) 학생은 "NUS 학생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 학생답게 상대방의 발표를 경청하는 자세나 질문을 하는 태도가 무척 진지했다. 저 또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영학 전공인 NUS 학생 Serene Tan Si Pei 씨는 "같은 주제라도 나라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사고가 무척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진수(경영 11) 2013 공인회계사 최연소 합격



연세대 경영대학이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공인회계사 최연소 합격자를 배출했다.

영광의 주인공인 최진수 학생은 1학년 2학기 때 회계원리 수업을 듣고 자극을 받아 도전하게 되었다. CPA의 무게감은 매우 컸지만 교수님의 말씀 덕분에 CPA에 관심을 갖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공부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스스로 회계사가 됐다는 상상을 하며 힘을 얻었다. 어렵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의 책임감을 되새기며 공부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최진수 군은 본인의 합격 노하우에 대해 '꾸준한 노력'을 꼽았다. 1, 2차 시험 모두 준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출석 체크를 할 정도였다. "컨디션과 상관없이 일단 아침에 학교를 가게 돼서 규칙적으로 큰 슬럼프 없이 수험 생활을 지낼 수 있었다."고 본인만의 합격 비결을 전했다.

50년간 쌓은 글로벌 리더 양성의 금자탑

2015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연세 MBA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 양성의 산실이다. 최고의 교육 과정과 혁신적 연구,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오직 연세 MBA만의 경쟁력을 완성해 나간다.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이을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진다.

해외 단기 프로그램 GET 및 GFT 더욱 다양화



영국 SOAS 프로그램에 참가한 GET 학생들과 단체사진

연세 MBA의 대표적인 해외 단기 프로그램인 GET(Global Experience Trip)과 GFT(Global Field Trip)가 여름과 겨울방학에 진행되었다. 진행 지역이 핀란드, 영국, 중국 상해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GET

- 영국 SOAS "Understanding the Eurozone Crisis and it's Evolution" (2013.6.23~6.29)
유로존 내의 영국 중앙정부의 영향력, 유로존의 현재 위기 등 유로존과 영국이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통해 영국 현지의 기업문화 등 영국 전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미국 UW(University of Washington), "Developing Strategic Thinkers and Leaders" (2013.6.23~6.29)
전략적 사고, 전략적 마케팅, 리더십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미국 시애틀이 본거지인 보잉사를 방문해 항공 산업을 이해하고 스타벅스를 찾아 첨단 마케팅 직접 확인했다.
- 싱가포르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Understanding Singapore-Hub of Innovation and Creative Entrepreneurship" (2013.2.5~2.6)
싱가포르의 경제 전략,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강의와 삼성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와 난양기술대학의 Nanyang Tech nopreneur ship Center를 방문해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력을 고찰했다.

GFT

- 핀란드 Aalto "Innovation Management in a Complex World"

(2013.6.30~7.7)

주한 핀란드 한국대사관, 핀란드 기업인 Fiskar와 KONE,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휴대폰 게임 앵그리버드 시리즈를 제작한 Rovio사를 방문했다.

- 미국 UW(University of Washington), "Leading in a Changing Global Environment" (2013.7.14~7.21)
글로벌 브랜드 전략, 윤리적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진행하며 특화된 스타벅스와 필립스를 방문했다.
- 중국 상해, "중국법 이해: 중국의 소송제도를 중심으로" (2013.1.19~1.11)
중국에서의 소비자행동과 마케팅, 중국의 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중국법 이해를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 아모레퍼시픽 상해법인 방문해 중국 마케팅과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 등을 이해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지리산 정상에 올라

MBA는 2013년 11월 1일과 2일 양일 간 리더십 개발의 일환으로 지리산을 등반했다. 등반에 나선 원우는 24명이고, 경영전문대학원 박용석 부원장이 지도교수로 참여했다. 원우들은 힘든 코스였음에도 팀워크를 발휘하며 곳곳이 등반을 계속했고, 마침내 정상에 올라 큰 성취감을 맛보았다.

박민규 원우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지만 팀 단위로 산에 올라서 가능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적절한 안배와 균형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실천, 해비타트 활동



연세 MBA는 2013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사회공헌 실습인 해비타트 활동을 펼쳤다. MBA 원우 28명이 참여했으며 서응교 교수(정보시스템 전공)가 지도교수로 참여했다. 이들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의 리모델링 작업에 합류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3일간 진행된 이번 봉사에서 학생들은 마을 리모델링 작업 중 가옥 3채의 벽 손질, 공동화장실 및 주차장 옹벽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다.

해비타트 프로젝트는 MBA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봉사와 참여의 경험을 통해 윤리적 경영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참여 학생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지역 문화를 이해하며 리더십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왔다.

기업별 맞춤형 계약학과 GBI MBA 개설 협약 체결

경영전문대학원은 한국전력공사(KEPCO) 및 국내전력 관계사와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Global Business Intensive MBA(GBI MBA)로 최초의 기업별 맞춤형 계약학과가 탄생한 것이다.

GBI MBA는 국내 전력산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고 해외 전력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에너지 관련 분야의 해외 사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국내 최대의 전력회사인 한국전력공사(KEPCO)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손잡고 계약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다.

Life-long Networks

우리는 One MBA, MBA Nite



연세대의 4가지 MBA 프로그램(Corporate, Finance, Executive, Global MBA)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는 제1회 연세 MBA Nite이 2013년 9월 4일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열렸다. 'One MBA'라는 결속력을 높이고 동종 직종 간 교류를 활발히 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한편 이어진 2회와 3회 MBA Nite에는 각각 HR · Marketing · Consulting / 증권 · 금융 분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했다.

GMBA Reunion & Get Together



GMBA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 자리에 모이는 Reunion 행사를 2013년 6월 3일, 12월 10일 두 차례 가졌다. GMBA는 연세 MBA 중 유일하게 Full-time 과정이고 국내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고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한국 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외국의 문화를 익히고 글로벌 감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국 학생들의 강한 네트워크는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되는 관계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발한 학문적 성과로 연세의 이름을 드높이다



연세경영 석 · 박사 학생들이 해외 국제 우수 저널과 함께 학진 등재지에 공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 활발한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 대회에서 논문이 채택되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석 · 박사는 이제 당당히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성과로 연세경영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발표 논문 공저자로 활약

SSCI 국제우수

김홍기(석사 07)

Effects of collaborative online shopping on shopping experience through social and relational perspectives, *Information & Management*, 50(4): 169-180.

손정민(박사 08)

Is the culture-emotion fit always important? Self-regulatory emotions in ethnic food consump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8): 983-988.

학진 등재지

강민정(박사 11)

국제회계기준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56(2): 169-221.

강민정(박사 11), 박현영(박사 12)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 이익조정과 감사투입시 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54(2): 529-564.

강민정(박사 11), 이명건(박사 10)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재무 분석가 이익예측 및 회계정보 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38(1): 281-320.

김지영(박사 11)

카카오톡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28: 17-38.

김치현(박사 11)

IT 아웃소싱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IT 자원들과 그 관계: 자원기반 관점에서, *Information System Review*, 14(3): 53-74.

김한나(박사 06)

자율공사의 기업설명회 개최공시에 대한 영향: 대체효과와 보완효과, *한국증권학회지*, 42(1): 79-103.

김효진(박사 13)

구매기업의 지식기반 공급자개발활동이 공급기업의 사회적 자본, 지식습득 및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4(2): 185-215.

배창현(박사 13)

회계오류에 대한 외부감사의 역할, *회계저널*, 22(3): 71-99.

서영미(박사 09)

비대칭적 원가 행태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12(2): 1-24.

서정화(박사 12)

보험산업의 이익조정 연구 : RBC비율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93(12): 1-28.

손정민(박사 08)

이용자 생산 콘텐츠 플랫폼 사이트 내에서 생산자 참여가 소비자 선택과 몰입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경영학연구*, 42(2): 529-551.

신인용(박사 10)

조직구성원의 네트워크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조적 공백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20(3): 77-109.

유영태(박사 10), 임주현(박사 10)

현저한 상황변동관련 조회공시의 번복과 정보과, *회계정보연구*, 31(2): 1-31.

이지원(석사 10)

SNS(social network sites)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의 형태가 소비자 제품선택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1(6): 1619-1641.

장련(박사 09)

Pre-clusterization and Competitiveness: An Exploratory Study of Korean Small and Middle-sized Enterprises in China, *국제통상연구*, 18(1): 107-144.

정종빈(석사 11), 최재호(석사 13)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알고리즘 개발 및 성과 평가: 미국 및 홍콩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경영과학*, 30(1): 73-89.

최영은(박사 06)

Pureundul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PACA): A Case Study on ERP Adoption in a Small Firm,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6(1): 51-59.

최지은(석사 09)

계좌 이용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이 온라인 뱅킹 이용자의 보안인식에 미치는 영향, *Information System Review*, 14(3): 75-97.

최현정(박사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회계투명성간의 관계, *회계학연구*, 38(1): 135-171.

국제학술대회 논문 채택 및 발표 사례

이름	학술대회명	지역
김도윤(석박통합 08)	Academy of Management	Orlando, USA
김맑음(석사 11)	Academy of Management	Florida, USA
김수연(박사 13)	Frontiers in Service Conference	Taipei, Taiwan
김신영(박사 12)	Frontiers in Service Conference	Taipei, Taiwan
김은우(석사 11)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Istanbul, Turkey
김은우(석사 11)	Academy of Management	Orlando, USA
김지연(석사 11)	35th Marketing Science Conference	Istanbul, Turkey
노그림(박사 13)	Academy of Management	Orlando, USA
손정민(박사 08)	Columbia-Duke-UCLA, Workshop on Quantitative Marketing and Structural Economics	North Carolina, USA
윤희영(석사 12)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ACR)	Chicago, USA
이은정(박사 1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naheim, USA
이태현(석사 12)	Academy of Management	Orlando, USA
장련(박사 09)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Istanbul, Turkey
정종빈(석박통합 11)	Inform Annual Meeting	Minnesota, USA
최재호(석사 13)	Inform Annual Meeting	Minnesota, USA
최현정(박사 10)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naheim, USA
황선영(석사 11)	Academy of Management	Florida, USA

김수연(박사 13), 2013 Global Ph.D.Fellowship 수혜자로 선정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수연 학생(박사 13, O.D.I. 전공)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2년 및 2013년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 · 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2013 Global Ph.D. Fellowship'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수혜자는 연간 3천만 원, 2년 동안 총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총 선발 규모는 200명으로 인문사회계 대 이공계 선발 비율이 2:8인 점을 감안하면 김수연 학생은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선발되었다.

김수연 학생은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석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최선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동기, 선배들과 즐겁게 학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Customer Engagement에 초점을 둔 Service Experience Design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 이 모델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원종철 11대 동창회장(삼원인쇄 회장)과 이흥기 12대 동창회장(골드라인 회장) “AMP, 연세경영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할 것!”



제11대 AMP 총동창회장 원종철 동문(47기, 삼원인쇄 회장)

YSB : 먼저 지난 2년간 AMP 총동창회를 맡아 이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종철 : 지난 2년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업무와 가정, 그리고 AMP를 모두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고, 대신 그만큼 높은 성취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낙 AMP에 대한 애정이 크고, 더불어 저를 도와주신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아주 즐거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흥기 회장은 제가 매우 아끼는 동기가자 사업가입니다. 큰 역량을 가지고 있어 지금보다 멋진 AMP총동창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굳이 선임 회장으로서 한 가지 조언한다면, 동창회장이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YSB : 12대 동창회장을 맡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흥기 : AMP는 35년의 역사와 최고 수준의 교육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전통의 가장 큰 줄기인 총동창회의 회장을 맡아 큰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YSB : AMP 총동창회에 대해 소개 바랍니다.

원종철 : 한국 최초로 개설된 최고경영자 프로그램이 바로 연세 AMP입니다. 총동창회 역시 그 전통에 걸맞게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경영자들 간의 정보 교류와 전문가들의 최신 경영이론 공유 활동이 있으며, 나아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MP 총동창회는 총 4,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인원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마포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상주 직원이 있다는 것만 봐도 AMP 총동창회가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YSB : 지난 11대 동창회 활동에서 주로 추진했던 역점 사업과 성과 등을 평가한다면?

원종철 : 21세기는 ‘know-where’의 시대이고 AMP 총동창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총동창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동문 선배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얼마나 잘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세 최고경영인의 밤’에 900명 이상의 원우들이 참석해 AMP 창립 이래 가장 성대하게 치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YSB : 이번 12대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흥기 : 당연히 좋은 전통은 계승 발전할 것이며 개인적인 욕심으로 몇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총동창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졸업한 원우들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과 화합을 위한 모임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아울러 AMP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좋은 원우님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동창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원우님들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수별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AMP를 수료하고 나서도 평생 필요한 교육을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총동창회 제12대 동창회장이 취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11대 총동창회를 이끌어온 원종철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흥기 회장이 새롭게 12대를 이끌어 나간다. 다양한 원내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연세 동문 사회의 결속력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을 얻고 있는 원종철 11대 동창회장, 그리고 전통을 계승하고 더불어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흥기 12대 동창회장을 만나 AMP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취임식에서 동창회기를 주고받는 원종철 전임회장(왼쪽)과 이흥기 신임회장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훌륭한 강사진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좋은 초산 포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가 마당을 제공하고 총동창회가 인원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YSB : 연세 AMP만의 장점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종철 :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세계 100대 MBA에 드는 국내 1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강사진이 바로 연세 AMP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AMP를 찾는 분들 역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연세’를 지향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영자들이 모인다는 것 또한 매우 특별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흥기 : 저 역시 훌륭한 교수님들과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 위에서 좋은 원우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AMP를 찾는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로서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개인의 발전, 사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YSB : AMP 이수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십니까?

원종철 :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변화와 전략, 불황 극복을 위한 경영론, CEO의 자기 관리 등을 배울 수 있어 경영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흥기 : 저는 평생 사업만 한 사람으로서 AMP를 통해 생각의 폭과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비단 경영뿐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음악과 미술, 특히 인문학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전보다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총동창회 역시 원우님들의 경영과 문화 활동을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YSB : 끝으로 연세경영 발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종철 : 이미 연세경영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랭킹 50위 진입이라는 목표를 빠른 시일에 달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발맞춰 AMP 총동창회 또한 큰 발전과 든든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흥기 : 현재 AMP는 기존과 달리 1년 과정으로 원우님들을 모집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AMP가 연세경영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창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AMP 총동창회장 이흥기 동문(47기, 골드라인 회장)



상남경영원, 국내 최초 경영자 교육 전문기관

국내 최초의 경영자 교육 전문기관인 상남경영원은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주요 기관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경영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탁월한 교육성과를 올리고 있는 상남경영원은 연세경영이 가진 또 하나의 경쟁력이자 자부심이다.

상남경영원, 2013 FT선정

아시아 최고의 위탁경영자 교육기관으로 성장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이하 FT)가 발표한 '2013 기업 위탁 경영자 과정 랭킹(FT Executive Education Ranking 2013-Customised Programmes)'에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속 상남경영원이 아시아 1위, 세계 61위를 차지했다. 상남경영원은 2012년에도 세계 68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7단계나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2년 연속 글로벌 순위에 포함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영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상남경영원은 2013년 총 13개의 기업과 위탁경영자과정을 운영했다. FT 랭킹의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 구성, 강의교재, 교수진, 교육생 수준, 새로운 기술과 학습효과, 교육 프로그램 사후관리, 교육시설 등이며 졸업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된다. 이 중 상남경영원은 프로그램 사후관리(follow-up) 평가에서 세계 31위에 올랐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도 A/S (after School) 특강, 지식 심화과정 개발 참여 등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꾸준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위탁교육과정 및 해외연계과정 교류행사,

상남힐링캠프 개최

2013년 4월 20일 상남경영원 위탁/해외연계과정 교육생들 간의 교류 및 팀워크 학습을 위한 상남힐링캠프 행사가 진행되었다. 금호아시아나MBA과정 교육생 30명, 동원-연세MBA과정 교육생 38명, 신세계SMBA과정 교육생 40명, ETP Korea 교육생 10여 명, 그리고 각 과정 주임 교수 및 프로그램 매니저들이 참여한 본 행사는 "숲에서 배우는 지속성장의 지혜"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교정 및 인근에 위치한 안산(鞍山)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6개 팀으로 나뉘어 산을 오르면서 자연이 주는 지혜를 찾고 개인과 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한 단서를 공유했다. 특히 '지속성장 전략'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손수 만든 책갈피에 담아 시작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낯선 날씨에도 열의를 갖고 참여한 교육생들은



"자연과 함께한 숲 속 교육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상남힐링캠프는 기업, 업종, 국적을 넘어 교육생들이 하나가 되어 강의실 밖에서 상호 학습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EC가 후원하는 Executive Training Programme in Korea 7기 성공적으로 운영

상남경영원이 2013-2015 ETPK(Executive Training Programme in Korea)의 교육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TPK는 유럽위원회(EC)가 설립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유럽연합 소속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와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상남경영원



은 2015년까지 ETPK 7기-9기 프로그램의 교과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EC로부터 3년간 약 3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2013년에 진행되었던 ETP Korea 7기 교육 과정에는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총 7개 국가에서 14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1년간 한국의 기업문화 연구, 한국 경제와 역사, 한국식 기업경영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 기업 인턴십 연수 등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11월 8일에 거행된 졸업식에서는 주한유럽연합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 경영대학 교수진과 상남경영원 관계자, 인턴십 관련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해 주었다.

상남경영원 UNICON Conference 참가

UNICON(UNiversity CONSortium의 약자, 이하 UNICON)은 전 세계 85개 이상의 세계 유수 대학과 경영자 교육 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 경영자 교육기관 연합체로 상남경영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 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최신 경영자 교육 트렌드와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 등을 상남경영원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상남경영원은 미국 Babson College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린 2013년 UNICON Team Development Conference에 참가했다. "Creating Opportunities through Entrepreneurial Thought and Action"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3년 UNICON 컨퍼런스에 참여한 200여 명은 25개 팀으로 나뉘어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방안,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안 등 주어진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보며 경영자 교육의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에 주력했다.



나눔을 통해 연세대 커뮤니티에 기여

상남경영원은 1999년 3월 17일을 시작으로 15년간 수요일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요일음악회는 연세대의 모든 구성원과 방문객들을 위해 학기별 3~4회 수요일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상남경영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수요일음악회는 정상급 연주자들의 클래식 음악을 가깝게 접하며 바쁜 연구와 업무에 지친 교내 구성원들의 마음에 휴식을 선물한다. 상남경영원은 앞으로도 연세대 음악대학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상남경영원은 연세대학교 대학 교회에 연간 2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해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점심 쿠폰을 제공하는 교회의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남경영원은 연세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3년 수요일음악회 프로그램 진행 내용

- 03.27(수) Jura Margulis / Piano Recital
- 04.17(수) 박종훈 / Piano Recital
- 05.22(수) Gebert-Kokits / Cello-Piano Duo Concert
- 09.25(수) 조재혁 / Piano Recital
- 10.30(수) 유럽 색소폰 5중주단 연주회 - Alliage Quintett
- 11.27(수) 이화여대 음대교수 초빙 연주회 - 성악, 피아노
- 12.20(금) 크리스마스 음악회 - 성악, 합창

2013년 교육과정 운영 현황

위탁과정 : 연세의료원 Mini MBA과정, 금호아시아나MBA과정, 동원-연세 MBA과정, 신세계 SMBA과정, 한국전력공사 Global Business Intensive Course, STAK IMP, LG패션 MBA과정, 삼성화재 핵심인재양성 Biz-Leader과정, KDB대우증권 부점장 양성과정,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코리아 AMP, SBS미디어그룹 차세대 경영자 경영전략과정, 전문건설공제조합 MBA과정

모집과정 : 고급마케팅전략과정, 프랜차이즈CEO과정, 고급기업분석과정

해외연계과정 : ETP Korea

미래 경영의 비전과 솔루션을 제시하다

심오한 학술 이론과 정밀한 응용 방법을 연구해 미래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연구소.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 그리고 실용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21세기 경영 미래의 비전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연구소의 2013년 눈부신 업적들을 소개한다.

국제 세미나 '한국과 대만의 기업생태계 비교'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소장 김동훈)와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은 2013년 11월 5일 연세대 상남경영원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영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 생태계 비교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0여 년간 한국과 대만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했다. 하지만 양국은 기업 생태계가 서로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생태계 비교 분석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대안을 모색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동훈 연세대 경영연구소 소장, 홍순영 경기개발원장, 박성주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학장, 정구현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박주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 이수행 경기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이근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대만 측에서는 대만 중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의 임종홍 연구원과 사비우 연구원이 참석했다.



조찬 세미나 '복잡성과의 전쟁'

연세대 경영연구소(소장 김동훈)는 2014년 2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스티븐 월슨과 안드레이 페루말을 초청해 '복잡성과의 전쟁'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잡성 관리'는 원래 2009년 갑자기 닥친 세계적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스티븐 월슨과 안드레이 페루말은 복잡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영렬 경영대학 학장은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세미나를 기획했으며 특히 연세경영 동문인 여러 기업의 대표와 관계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동훈 소장 역시 앞으로 연세경영 10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조언과 조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국제우수학술지 게재 논문

Andres Guiral

- Do Non-socially Responsible Companies Achieve Legitimacy Through Socially Responsible Ac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7(1)

- Do Investors Value a Firm's Commitment to Social Activit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4(4)

김동훈

- Is the culture-emotion fit always important? Self-regulatory emotions in ethnic food consump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8)

김성문

- Workforce planning and deployment for a hospital reservation call center with abandonment cost and multiple tasks,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 6(2)

김영찬

- The integrated mobile advertising model: The effects of technology- and emotion-based evalu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6(9)

노현탁

- The link between diversity and equality management practice bundles and racial diversity in the managerial ranks: Does firm size matter?, *Human Resource Management*, 52(2)

서길수

- Effects of collaborative online shopping on shopping experience through social and relational perspectives, *Information & Management*, 50(4)
- The Impact of Listing Location on Visits, Bids and Final Prices in Online Auctions: A Field Experi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17(3)

윤대희

- Revisiting the Make-or-Buy Decision: Conveying Information by Outsourcing to Rivals, *Accounting Review*, 89(1)

이동진

- The Influence of Love of Money and Religiosity on ethical Decision-Making in Market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4

이호근

-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in IS outsourcing: inter-firm governance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2(5)

임건신

- Do Large Firms Become Smaller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4(2)

국제우수학술지 워킹페이퍼 목록

Andres Guiral

- Can Excellence i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Improve Investors' Financial Assessments and Credibility of Managers' Forecas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박주영

- The Network View of Learning and Commitmen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Banks during Cris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김성문

- Workforce planning and deployment for a hospital reservation call center with abandonment cost and multiple tasks, *Computers and Industrial Engineering*

노현탁

- Constraints on equity: A meta-analytic test of occupational, industry, and job effects on gender differences in work outcom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 The Business case for gender diversity: The role of HRM investments, *Journal of Management*

박영렬

-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Business: Evidence from Korean and Japanese Electronics MNEs in Indones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 Innovative knowledge transfer patterns of group-affiliated companies: The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foreign subsidia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윤대희

- Revisiting the Make-or-Buy decision: Conveying information by outsourcing to rivals, *The Accounting Review*

임일

- Impact of Knowledge and Choice Uncertainties on Online Consumers' Search Behaviors and Purchase Propensities in Sponsored Search Platforms, *MIS Quarterly*

- Shifting the Way We Communicate: Analysis of Twitter on a Mobile Communication Device in the Group Collaboration Contex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이호근

- Is There a Dichotomy of Critical Success Factors in Influencing Satisfaction and Post-Adoption Usage of IT-enable Service?, *Journal of MIS*

정부천

- Labor unions and income smooth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최순규

- Learning from prior failures-If and when they may happen: Evidence from Korean MN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워킹페이퍼(Working Paper)란?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전 단계로, 해외저널에 투고한 논문을 의미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교육, 그 열정

연세경영은 이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와 우수한 인재의 배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스쿨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자랑하는 교수진들이 있다. 열린 사고와 창의적 시선으로 미래 교육을 펼치는 교수진들의 노력과 열정을 소개한다.

이무원 교수, YSB 석좌교수로 임용



University of Hawaii에서 9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거시조직이론 분야의 석학 이무원 교수가 2013년 9월부터 YSB 석좌교수로 합류했다. 2003년에 Stanfo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현재까지 6편의 최고 권위 연구지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를 출간했고, 앞으로도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늘 마음 한편에 한국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자리했다는 그는 모국, 그 중에서도 모교에서 연구와 교육을 펼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16년간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YSB의 교수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무원 교수는 연세경영 학생들의 장점으로 "성실하고 진실되며 금융들과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가 깊어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이 미국의 우수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저 역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연세경영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세경영 리서치 펠로우 제도 도입

연세경영이 '리서치 펠로우(YSB Research Fellow)'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우수한 신입 교수 임용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재직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특등급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리서치 펠로우로 선정된 교수는 연구력 증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선정된 리서치 펠로우는 손재열 교수(정보시스템 전공), 윤대희 교수(회계 전공), 임건신 교수(정보시스템 전공), 최정혜 교수(마케팅 전공) 등 4명이다.

석학들의 정년퇴임

경규학 교수와 김준석 교수, 그리고 주인기 교수가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먼저 경규학 교수가 2013년 8월 30일 정년퇴임했으며 이에 앞선 6월 14일 퇴임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경규학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상학 학사를 수여 받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스위스 St. Gallen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교수로 부임한 이래 33년간 경영과학의 첨단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으며, 세계적인 이공계 전문학술지인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자동제어 논문집(IEEE-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에 논문을 게재해 주목 받기도 했다.

김준석 교수는 2014년 2월 정년퇴임했다. 그는 연세경영에 몸담았던 일을 '큰 축복'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기업가, 전문경영인, 회계사, 법조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늘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고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준비할지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된다."면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루고자 소망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길 권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2014년 2월 정년퇴임한 주인기 교수는 퇴임 후 경영대학에서는 한 과목 정도만 강의하는 대신 송도에서 학부대학 교양필수과목 <자본주의 이후의 시장경제>라는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어서 오히려 1학년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늘었다며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그는 공인 회계사회 대표로 국제회계사연맹에 참석하고, 내년 우리나라 개최 예정인 2015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으며 퇴임 이후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칠 계획도 갖고 있었다. 주 교수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처음 연세대에 부임하여 강의를 했을 때이며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IMF때 하루아침에 집안이 안 좋아져서 학생이 어둡고 절망한 분위기로 찾아와 상담 했을 때다. 당시에 그 학생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왼쪽부터 경규학 교수, 김준석 교수, 주인기 교수

강단을 떠나며... 고별강연

2013년 12월 11일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장기원 국제 회의실에서 오세철 명예교수가 명예교수로서의 마지막 강연을 가졌다. 오세철 교수는 1970년 경영학과 전임 교수로 부임했으며 1967년 시작한 시간 강사 시절까지 합치면 무려 46년간 연세경영 학생들을 가르친 셈이다.

오세철 교수는 "사실 오늘 강의에 유별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 그저 이번 학기 수업의 마지막 강의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퇴임 마지막 강의에서도 수업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한편 오세철 교수는 한국경영학회 선정 '2013 상남경영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내가 생각하는 경영학은 보통 경영학자들과 다르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40년 동안 비주류였는데, 이 상을 받게 되어 의외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명 교수는 2013년 12월 12일 연세대학교 대우관 B120호에서 고별 강연회를 가졌다. 장명 교수는 1995년 우리 대학에서 회계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2004년부터 경영학과 객원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해왔다. 이날 박영렬 경영대학 학장은 지난 10여 년간 학생들을 위해 힘써온 장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오세철 명예 교수, 동료 교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명 교수

최정혜 교수, 여성 최초 연세학술상 수상

최정혜 교수(마케팅 전공)가 2013년 5월 11일 연세대 12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부임 3년 만에 연세학술상을 수상했다. 1968년 연세학술상이 제정된 이래 사회과학 분야에서 여성 교수가 수상한 것은 최 교수가 최초다. 연세학술상은 연세대가 선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술상이며, 부임한 지 3년 만에 연구 실적을 널리 인정받아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소식에 이어 작업 중인 MSI Working Paper



최정혜 교수

가 '2013 Robert D. Buzzell MSI Best Paper Award' 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MSI(Marketing Science Institute)는 미국의 권위 있

2013년 연세경영의 교수진들은 우수한 연구 활동으로

다양한 수상 실적을 거두며 대한민국 경영학계를 이끌었다.

또한 새로운 교수진이 합류하고 지금까지 연세경영을 이끌어온

석학들이 정년퇴임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는 마케팅 연구기관 중 하나로 이번에 수상한 논문 제목은 '신제품 도입에 있어서 사회적 전염의 메커니즘 구별(Distinguishing Among Mechanisms of Social Contagion in New Product Adoption)'이다. 학년 말에도 계속 수상소식이 이어졌다. 2014년 2월 27일에는 한국경영학회 선정 '신진경영학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한국 경영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연구에 공헌한 45세 이하의 신진 경영학자에게 수여된다. 올해 최초로 시행된 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임건신 교수, 2013 초헌학술상 수상



2013년 12월 6일 '2013 연세상경인의 밤' 행사에서 경영대학 임건신 교수(정보시스템 전공)가 연세대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수여하는 초헌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고병헌 동문(경영 64)이 모교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임 교수는 미국에서 교수로 있을 때부터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Decision Sciences Institute, Beta Gamma Sigma 등 저

명한 연구 단체에 몸담으면서 학자로서의 뛰어난 잠재력을 보였으며, 우리 대학 부임 이후 갈수록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루어냈다. 특히 2012년에는 최고 권위지인 <MIS Quarterly>(Vol.36, No.1)에 'Value Cocreation and Wealth Spillover in Open Innovation Alliances' 논문을 게재해 경영학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Cocreating IT value나 Open innovation 분야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2013년 역시 최고 권위지 <Information Systems Research>(Vol.24, No.2)에 'Do Large Firms Become Smaller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논문을 게재해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업 규모를 1인 기업으로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 정보시스템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손성규 교수, 2013 연세대학교 우수업적상 저역서 부문 수상

경영대학 손성규 교수(회계 전공)가 연세대학교 선정 2013 우수업적상(저역서 부문)을 수상했다. 손 교수는 지난 20년간 학문 활동을 펼치면서 1편의 교과서와 5편의 학술서를 저술했으며, 특히 2편의 학술서는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업적상은 연세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동 부문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 약 25명 내외를 선정해 수여한다.



이호근 교수, 2013 연세대 공헌교수상 수상



경영대학 이호근 교수(정보시스템 전공)가 2013 연세대 공헌교수상을 수상하였다. 공헌교수상은 연세대가 정교수의 교육·연구 성과를 극대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3년에 신설된 상이다. 그 동안 경영관 신축 등 학교행정 업무로 연구와 교육에 전력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 교수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공헌교수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구와 교육에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근 5년간 한국경영정보학회 최우수논문상과 우수강의교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경영대학 경영관 신축 설계 등 전 과정에서 큰 공헌을 했다. 공헌교수상을 수상한 교수는 이호근 교수를 포함해 총 8명이다.

연구 관련 수상 실적 (논문제목, 수여기관, 수상연월)

Guiral Andres "Inform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bout Earnings Persistence and Future Stock Returns", World Busines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Conference, 2013.10

곽주영 "The Impact of International Experiences o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 Case of Korean MNCs", Academy of Management, 2013.08

서길수 "인기도 기반 온라인 추천 뉴스와 지면 뉴스의 중요도 비교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2013.11

손성규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의 번복과 정보효과", 회계정보학회, 2014.01

신동엽 "Strategic Decoupling: Ambiguous Identity as a Strategic Choice in Korean Business Groups", 2013 한국인사조직학회 최우수논문상, 2013.04

엄영호 "KOSPI200 지수 분산스왑 및 분위위험 프리미엄 기간구조", 2013 선물연구 최우수 논문상, 한국파생상품학회, 2013.11

이무원 The Winner of SO!WHAT Best Paper Award;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ternal variety and environmental dynamism",

최순규 "The Impact of International Experiences o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 Case of Korean MNCs", 2013 Academy of Management Annual Conference, 2013.08

최정혜 연세학술상, 연세대학교, 2013.05

허대식 "구매기업의 힘의 원천이 공급기업의 공정성 인식, 관계몰입도 및 공급망 통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산관리학회, 2013.04

학회 활동

교수명	학 회 명	직 위	임 기
곽주영	한국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	2014.03~2015.02
김동훈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2013.04~2014.03
김진우	한국HCI학회	학회장	2012.02~2014.01
박영렬	한국경영사학회	학회장	2014.01~2015.12
박용석	한국국제경영학회	편집장	2013.07~2015.06
박용석	한국국제경영학회	부회장	2014.01~2014.12
연강흠	한국재무학회	회장	2014.01~2014.12
이무원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Senior Editor	2013.09~2018.12
이호근	Pacific Asia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2013	Co-chair Conference	2012.07~2013.06
	한국경영정보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2014.01~2014.12
임 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편집위원장	2012.03~2014.02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부회장	2014.03~2015.02
최순규	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	2012.02~2015.01
허대식	한국생산관리학회	부회장	2014.01~2014.12

사회 활동

교수명	사회활동 기관명	직 위	임 기
김동훈	GS Retail	사외이사	2011.04.~2014.03.
김진우	SBS Content Hub	사외이사	2013.03~2014.02
김태현	영호학원	재단이사	2013.11~2015.11
	물류산업진흥재단	재단이사	2013.11~2015.11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2013.10~2015.10
손성규	한국회계학회/삼일회계법인	삼일 저명교수	2013.07~2015.06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013.03~2015.03
	유니온스틸	사외이사	2013.03~2015.03
연강흠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장	2013.04~2015.04
	금융투자업인가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	2013.01~2015.12

연세경영 교수진

전임교수

마케팅

마케팅 전공

김동훈 Ph.D.(Columbia University, 1989)
 김영찬 Ph.D.(University of Michigan, 1995)
 박세범 Ph.D.(Northwestern University, 2004)
 박흥수 Ph.D.(University of Pittsburgh, 1988)
 오세조 Ph.D.(University of Cincinnati, 1987)
 이동진 Ph.D.(Virginia Tech., 1996)
 이완수 D.B.A.(University of Tennessee, 1981)
 임수빈 Ph.D.(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0)
 장대련 D.B.A.(Harvard University, 1986)
 최정혜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국제경영 전공

곽주영 Ph.D.(MIT, 2008)
 박영렬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1993)
 박용석 Ph.D.(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0)
 최순규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1997)

매니지먼트

권구혁 Ph.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김지현 Ph.D.(New York University, 2011)
 노현택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2010)
 박경민 Ph.D.(INSEAD, 2005)
 박현준 Ph.D.(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신동엽 Ph.D.(Yale University, 1996)
 양혁승 Ph.D.(University of Minnesota, 1998)
 오홍석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윤세준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88)
 이무원 Ph.D.(Stanford University, 2003)
 이지만 Ph.D.(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8)
 이호욱 Ph.D.(Texas A&M University, 2002)
 장은미 Ph.D.(University of Maryland, 1993)
 정동일 Ph.D.(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정승화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재무

재무 전공

구본일 Ph.D.(Columbia University, 1988)
 김민준 Ph.D.(Columbia University, 1985)
 박상용 Ph.D.(New York University, 1984)
 신진영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신현한 Ph.D.(The Ohio State University, 1995)
 엄영호 Ph.D.(New York University, 1996)
 연강흠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정부천 Ph.D.(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2007)
 정종락 Ph.D.(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한재훈 Ph.D.(Columbia University, 2003)

보험 전공

김정동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회계

귀랄 안드레스 Ph.D.(University of Alcala, 2003)
 김지홍 Ph.D.(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7)
 문두철 Ph.D.(Baruch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1)
 손성규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92)
 윤대희 Ph.D.(Yale University, 2008)
 이경태 Ph.D.(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92)
 이호영 Ph.D.(University of Oregon, 2000)
 장진호 D.B.A.(Harvard University, 1999)
 주인기 Ph.D.(New York University, 1986)
 최원욱 Ph.D.(Columbia University, 1993)

O.D.I

오퍼레이션 전공

김태현 Ph.D.(Indiana University, 1986)
 민순홍 Ph.D.(The University of Tennessee, 2001)
 배성주 Ph.D.(MIT, 2009)
 최선미 Ph.D.(Cornell University, 2001)
 허대식 Ph.D.(Indiana University, 2001)

정보시스템 전공

김준석 D.B.A.(Indiana University, 1982)
 서길수 Ph.D.(Indiana University, 1989)
 손재열 Ph.D.(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이호근 Ph.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3)
 임건신 Ph.D.(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0)
 임 일 Ph.D.(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경영과학 전공

경규학 Ph.D.(Oec HSG St. Gallen, 1979)
 김성문 Ph.D.(University of Michigan, 2003)
 김진우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김학진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1)
 박선주 Ph.D.(University of Michigan, 1999)
 정예림 Ph.D.(University of Paris1, 2010)

강의 전담 교수

재무 전공

이희수 Ph.D.(University of Sydney, 2011)

정보시스템 전공

서응교 Ph.D.(Yonsei University, 2008)

회계 전공

엄지인 Ph.D.(Yonsei University, 2004)

명예 및 퇴임교수

김기영 Ph.D.(Washington University, 1975)
 송 자 Ph.D.(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967)
 신영수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78)
 오세철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75)
 이기을 Ph.D.(Washington University, 1959)
 이학중 Ph.D.(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963)
 임웅기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1977)
 정구현 Ph.D.(University of Michigan, 1963)
 정종암 Ph.D.(Yonsei University 1982)
 정종진 Ph.D.(Pusan University, 1972)

객원 및 연구교수

강영기 Ph.D.(Yonsei University, 1998)
 공병용 Ph.D.(Chuo University, 2009)
 김데이빗들은 석사(Columbia University, 2010)
 김영대 Ph.D.(Yonsei University, 2011)
 성혜진 Ph.D.(Yonsei University, 2010)
 손혁상 Ph.D.(Indiana University, 2012)
 양정미 Ph.D.(Brown University, 1987)
 장 명 Ph.D.(Yonsei University, 1995)
 장정훈 MBA (University of Michigan, 1978)
 홍근표 Ph.D.(Yonsei University, 1999)
 황연희 Ph.D.(Yonsei University, 2006)

Operational Highlights

주요 지표 (1인당 장학금액 단위: 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2010
Undergraduate Program				
재학생수	1,852	1,827	1,879	1,847
외국인학생 비율	4.9%	6.10%	6.5%	6.4%
교환학생 파견수	139	167	111	122
영어강의 비율	35.7%	37.6%	37.5%	34.0%
1인당 장학금액	263	242	254	240
등록금 대비율	36.9%	33.6%	35.5%	31.2%
MS/Ph.D Program				
재학생수	279	298	289	281
외국인학생 비율	21.14%	19.13%	20.8%	24.6%
영어강의 비율	9.68%	12.16%	13.1%	78.0%
1인당 장학금액	570	611	603	621
등록금 대비율	60%	94%	91.0%	87.0%
MBA Program				
재학생수	474	501	506	452
외국인학생 비율	8.6%	9.8%	9.5%	9.1%
영어강의 비율	39.7%	27.1%	28.9%	30.5%
1인당 장학금액	184	206	292	170
등록금 대비율	7.3%	8.1%	12.0%	7.0%
AMP				
재학생수	82	90	106	84
Executive Education				
위탁과정 수	14	22	21	21
모집과정 수	6	8	8	9
재학생수	611	1,148	1,042	1,020

구 분	2013	2012	2011	2010
Faculty				
전임교원	70	72	70	68
신임교원	2	5	2	7
여성교원	8	8	8	7
객원교원	9	10	7	7
겸임교원	26	28	26	24
연구교원	2	2	2	2
Administrative Staff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17	18	18	19
상남경영원	10	10	10	10
경영연구소	2	2	2	2

연세경영 기금 현황 (2014.02.28 기준, 단위: 백만원)

기금구분	전기 이월액	기금 수입	기금 인출	당기 잔액	증감액	증 감
건축재원기금	22,496	2,452	-431	24,517	2,021	8.98%
장학기금	1,649	764	-351	2,062	413	25.07%
프로그램발전기금	1,768	165	-13	1,921	153	8.63%
석좌교수기금	3,679	162	-34	3,807	128	3.47%
Class Gift	24	8	-10	22	-2	-7.84%
합계	29,616	3,551	-838	32,329	2,713	9.16%

연세경영 Leadership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학장 겸 원장	박영렬	원장	손성규
부원장	박용석	부원장	민순홍
교학부학장	임건신	경영연구소	
기획부학장	신현한		
석박사 주임교수	최선미	소장	김동훈
마케팅 분야 주임교수	김동훈	부소장	김성문
매니지먼트 분야 주임교수	장은미		
O.D.I 분야 주임교수	박선주		
재무 분야 주임교수	신진영		
회계 분야 주임교수	최원욱		
Global MBA 주임교수	박용석		
Corporate MBA 주임교수	임 일		
Finance MBA 주임교수	김인준		
Executive MBA 주임교수	장대련, 최순규		
AMP 주임교수	장진호		
학부 CLC 주임교수	양정미		

* 재학생 수(Undergraduate, MS/Ph.D, MBA) : 2013-2학기 기준
* 1인당 장학금액 : 1년간 총 장학금액/2013-2학기 재학생 수
* 등록금 대비율 : (1년간 총 장학금액/1년간 총 등록금액) *100

정병수 직원	홍득기(경영 87)	전상표(AMP 42기)
정성래(경영 84)	홍석주(경영 85)	조종환(경영 83)
정성원(경영 88)	홍재호(MBA 1970)	
정성호(경영 91)	홍창희(경영 86)	AMP 67기
정세연(경제 86)	황사용(MBA 2013)	AMP 68기
정연성(식생활 80)	황석연(경영 87)	AMP 69기
정연중(경영 97)	황익용(화공 81)	
정영동(경영 84)	황익진(MBA 2003)	(주)아모레퍼시픽
정영주(AMP 50기)	황이석(경영 80)	
정영한(경영 87)	황준호(경영 97)	1천만 원 이상
정우택(경제 59)		강호찬(경영 97)
정일영(경영 76)	경영 60학번 동기회	고은봉(경영 66)
정정호(경제 67)	경영 61학번 동기회	고한수(경영 70)
정주용(경제 70)	백유진-김호진 부부	구본걸(경영 76)
정찬구(MBA 2001)	상경대학 동창회	권오국(AMP 65기)
정택진(경영 81)	연경산우회	김경배(경영 83)
정희철(경영 85)	EMBA 4기 장학금수혜3인	김낙찬(AMP 67기)
조길용(AMP 13기)	MBA 52기	김성찬(석사 98)
조석일(경영 76)	MBA 87기 아간통합과정	김영호(AMP 52기)
조석준(MBA 2008)	MBA 동창회	김용운(AMP 16기)
조성연(MBA 2006)	YSB A/S 특강 참가자	김창수(경영 81)
조성우		김학수(경영 71)
조성출(경영 91)	가산의료재단 광동한방병원	라재훈(경영 69)
조영욱(경영 87)	대우가스보일러	서창우(경영 78)
조제태(경영 77)	동양종합금융증권	손석우(경영 83)
조정현(의학 74)	명화네트	신용한(경영 88)
진선근(경영 92)	천호식품	안용찬(경영 77)
진용균(경영 69)	케이디파워	오광성(경영 71)
차기섭 직원	코스닥라인	이경미 교수
차현덕(경영 69)	한림마린서비스	이두철(AMP 38기)
채성수(MBA 2013)	한화투자증권	이재익(경영 69)
최거현(경영 97)		이정익(AMP 22기)
최광룡(AMP 52기)		전찬민(경영 86)
최금학(MBA 2008)	장학재원 기금	정용화(경영 66)
최병우(경영 61)	5억 원 이상	조우제(경영 94)
최병해(경영 94)	연경장학회	한영재(경영 73)
최성식(경영 81)		한태식(경영 61)
최승준(정경대학원 2007)		황병주(AMP 22기)
최영준(상학 64)	3억 원 이상	
최인우(MBA 2000)	심장식(경영 73)	경영 83학번 동기회
최일명(경영 96)		경영 86학번 동기회
최정욱(경영 81)	1억 원 이상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추연욱(경영 93)	김영진(경영 75)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한영일(경제 66)	김정수(경영 69)	재연덕수상고
한유(상학 60)	최희규(경영 83)	AMP 52기
한인철 교수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AMP 70기
한중수(경영 81)		AMP 71기
한충섭(경영 88)		AMP 72기
한현주(석사 05)	(주)이랜드월드	AMP 총동창회
허과현(MBA 1976)	Dept. of veterans affairs	MBA 78대 원우회
허용석(경영 76)	5천만 원 이상	
허찬희(경영 83)	구재상(경영 83)	EMBA 3기
홍경희(MBA 2006)	이두원(상학 58)	MBA 87대 원우회
		MBA 총동창회

다음커뮤니케이션	5백만 원 미만	손지웅(경영 05)
대정장학회	김대균(경영 87)	동부문화재단
롯데쇼핑	김병배(경영 70)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김보성(경영 97)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삼성전자	김용현(경영 02)	
선등문화장학재단	김월용(AMP 61기)	
성주재단	노근현(경영 06)	경영학과재무분야발전기금
시몬느	안종현(경영 75)	5백만 원 미만
신한은행	염기현(경영 75)	성용훈(경영 00)
아산나눔재단	유기성(경영 06)	
에스비에스아이	이원규(경영 75)	
우리는행	전용환(경영 06)	Class Gift 2011
웅진씽크빅	정태한(경영 75)	
이마트	지산상(경영 75)	
일진전기		학부
장금상선	AMP 63기	강지윤(경영 06)
주한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AMP 75기 2반	고양중(경영 02)
코오롱글로벌		권오승(경영 03)
코오롱인더스트리	외환선물	김균(경영 04)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외환캐피탈	김동욱(경영 03)
테일러넬슨소프레스코리아	외환펀드서비스	김득훈(경영 07)
패션그룹형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맑음(경영 05)
포스코경영연구소	하나금융지주	김민지(경영 04)
하이드로젠파워	하나다울신탁	김민지(경영 04)
하이마트	하나다울자산운용	김범준(경영 02)
한국산업은행	하나대투증권	김수범(경영 04)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생명	김수정(경영 06)
한일재단	하나아이앤에스	김영익(경영 03)
현대증권	하나저축은행	김영준(경영 05)
GS건설	하나캐피탈(주)	김용석(경영 06)
LG전자	하나SK카드	김옥렬(경영 03)
SK텔레콤	ING생명보험	김윤진(경영 06)
		김은용(경영 04)
5백만 원 이상		김은우(경영 06)
김경휘(경영 83)	회계발전 기금	김인애(경영 04)
박재돈(AMP 53기)	1억 이상	김일우(경영 04)
박천택(경영 86)	삼일회계법인	김재혁(경영 03)
송자(상학 55)		김진우(경영 06)
신현한 교수		김철웅(경영 03)
이종화(AMP 53기)		김택균(경영 03)
	세계경영트랙발전기금	김현선(경영 05)
경영전문대학원 연구동창회	5백만 원 이상	김형규(경영 04)
AMP 52기	최순규 교수	노우성(경영 03)
AMP 70기		민경실(경영 06)
AMP 71기		민윤홍(경영 02)
AMP 72기	한국안센	박경홍(경영 03)
AMP 총동창회		박래현(경영 03)
MBA 78대 원우회	경영대학 동아리(YIG) 후원금	박승환(경영 04)
천일서암장학재단	5백만 원 미만	박영진(경영 01)
하나은행	김태환(경영 05)	박정민(경영 06)
한국외환은행		박진수(경영 06)
		박현식(경영 05)

박해민(경영 07)	차은경(경영 06)	김경훈	박홍식
백영민(경영 04)	최성욱(경영 05)	김규진	백선행
서유호(경영 03)	최수희(경영 06)	김기해	백성현
서정화(경영 01)	최신(경영 02)	김기현	백용해
서진(경영 06)	최영우(경영 02)	김기호	사철기
서진영(경영 03)	최지은(경영 05)	김나리	서윤지
손인석(경영 03)	최해림(경영 07)	김남기	서재식
손정균(경영 05)	하재성(경영 03)	김대현	석상규
송권영(경영 04)	하진규(경영 04)	김도균	성대형
송수길(경영 07)	한재웅(경영 04)	김동길	성백준
송연화(경영 06)	현예슬(경영 06)	김미완	손호균
송재혁(경영 03)	홍세화(경영 07)	김민	송경희
송현석(경영 03)	홍유빈(경영 07)	김상윤	송호진
심규환(경영 05)	황철상(경영 02)	김선배	신민승
심요한(경영 04)	석박사	김선영	신봉규
양우현(경영 04)	구현정(석사 09)	김선웅	신원정
왕태영(경영 04)	김상일(박사 07)	김성준	신종선
우영균(경영 04)	김영대(박사 03)	김성준	신진섭
유원석(경영 07)	김지연(석사 09)	김성환	신진호
유정민(경영 04)	라미령(석사 08)	김승환	심성후
이강석(경영 07)	리은경(석사 09)	김응수	안영열
이민형(경영 03)	모배권(석사 06)	김재환	양원진
이영준(경영 04)	박주진(석사 09)	김정훈	양지훈
이유안(경영 05)	박태훈(석사 09)	김종수	엄명섭
이의철(경영 05)	옥지웅(석사 07)	김주관	오승엽
이종원(경영 05)	유성훈(석사 05)	김주연	오우진
이지수(경영 05)	윤영수(박사 03)	김지수	오장환
이지혜(경영 06)	이기현(박사 07)	김태형	오태엽
이한솔(경영 03)	이아현(석사 09)	김태환	원경연
이호원(경영 03)	이은곤(박사 05)	김태훈	원영웅
이홍열(경영 03)	이재성(석사 09)	김호용	유수경
이황신(경영 04)	이정환(석사 08)	남민석	유영길
이훈성(경영 04)	이청열(석사 09)	문경신	윤석주
이희찬(경영 04)	임명서(박사 08)	문선영	이경범
임동섭(경영 04)	장운욱(박사 05)	문희정	이경주
임승혁(경영 04)	정슬기(석사 08)	민경익	이남진
임영룡(경영 04)	정승원(석사 09)	박경준	이동욱
임현정(경영 04)	조경엽(박사 01)	박민숙	이동준
장수환(경영 06)	황미진(박사 05)	박상언	이민아
장재현(경영 03)	황용희(박사 04)	박석환	이병진
장한나(경영 05)		박성용	이상우
정다운(경영 03)	MBA 2009	박성조	이상원
정상용(경영 05)	Ariunbold Gombojav	박성주	이생재
정선오(경영 05)		박수범	이상민
정지수(경영 05)	강민정	박영호	이소라
조경호(경영 03)	강민정	박원준	이연학
조성제(경영 05)	강선자	박은주	이영상
주선경(경영 03)	강현명	박장규	이영신
진두환(경영 04)	고형석	박준석	이이진
진시몬(경영 07)	권윤선	박지원	이장훈
차문수(경영 01)	권정민	박진형	이재민
차우석(경영 04)	금우현	박현우	이정득

이정숙	곽은영(경영 05)
이종성	김경태(경영 02)
이진일	김도형(경영 05)
이철	김동주(경영 04)
이태연	김동훈(경영 04)
이태호	김민우(경영 08)
이형규	김상일(경영 03)
이홍준	김시현(경영 03)
임계영	김우아(경영 07)
임동수	김정기(경영 04)
임선아	김정명(경영 03)
장은정	김준호(경영 08)
장재영	김지은(경영 05)
장희영	김지혜(경영 06)
정우열	김태정(경영 04)
정의선	김태혁(경영 04)
정재웅	김현우(경영 04)
정재형	김현준(경영 05)
정재훈	김해준(경영 04)
정창현	김해영(경영 07)
정현수	김확철(경영 08)
조영상	남상덕(경영 03)
조영수	남윤승(경영 04)
조지연	노가영(경영 06)
조혜련	노근현(경영 06)
진태원	문기성(경영 04)
차정희	박경찬(경영 06)
최기호	박기영(경영 04)
최서룡	박기홍(경영 04)
최석훈	박성수(경영 04)
최승빈	박수정(경영 05)
최우일	박종필(경영 04)
최우제	박준영(경영 04)
탁연정	박준호(경영 05)
한경호	박지수(경영 07)
한덕연	박찬민(경영 04)
한승준	박철오(경영 08)
허민희	박태준(경영 04)
허용	박해수(경영 07)
허준	박현규(경영 04)
황경곤	박현지(경영 07)
황병필	백성희(경영 07)
황일환	백운도(경영 03)
	변정윤(경영 07)
Class Gift 2012	서원교(경영 04)
학부	서정원(경영 05)
강성협(경영 05)	손소현(경영 06)
강진우(경영 04)	송민지(경영 08)
강창희(경영 07)	송승아(경영 05)
고경진(경영 05)	송유경(경영 05)
고경환(경영 04)	송인성(경영 04)
	송재원(경영 08)
	송정윤(경영 03)

송지섭(경영 05)	정원조(경영 03)	권영윤	이민석	권유경(경영 08)	장웅근(경영 06)
신단비(경영 08)	정자현(경영 05)	김대철	이수영	김대훈(경영 04)	장원재(경영 06)
신정우(경영 05)	정재욱(경영 05)	김대현	이슬기	김동민(경영 09)	전수환(경영 06)
신재은(경영 05)	정지원(경영 05)	김동수	이용권	김동완(경영 04)	전준호(경영 05)
심영보(경영 04)	정진엽(경영 04)	김상순	이용희	김동우(경영 04)	조예진(경영 09)
안동산(경영 04)	정혜승(경영 08)	김성열	이은경	김동현(경영 05)	조준혁(경영 05)
안정수(경영 05)	조선영(경영 07)	김성택	이재범	김미나(경영 08)	조창인(경영 05)
안진아(경영 06)	조성규(경영 04)	김성호	이종근	김범수(경영 05)	최경희(경영 08)
양성수(경영 04)	조승우(경영 08)	김수한	이종현	김상우(경영 05)	최동찬(경영 06)
양희원(경영 05)	조용준(경영 03)	김영건	이주리	김상우(경영 06)	최미영(경영 08)
염지현(경영 06)	조용호(경영 07)	김영근	이준명	김상준(경영 04)	최원영(경영 08)
오대해(경영 06)	조웅(경영 07)	김용식	이진석	김성진(경영 02)	최주영(경영 05)
오명석(경영 05)	조은지(경영 08)	김용태	임규원	김성현(경영 04)	하경주(경영 06)
오영환(경영 03)	조인혁(경영 08)	김은경	임섭	김유나(경영 08)	현진성(경영 06)
용승철(경영 02)	조항영(경영 06)	김인규	장정순	김유진(경영 09)	홍준기(경영 05)
유가영(경영 07)	주민서(경영 04)	김재완	전성미	김준희(경영 06)	황인아(경영 05)
유재준(경영 06)	진수정(경영 07)	김정환	정갑수	김태환(경영 04)	황필순(경영 04)
윤석기(경영 05)	채종민(경영 04)	김종환	정보근	도영우(경영 03)	
윤승인(경영 03)	최보민(경영 08)	김진갑	정석찬	명종환(경영 05)	석박사
윤주형(경영 04)	최영은(경영 07)	김진숙	정성락	모희(경영 09)	고옥결(석사 11)
윤지현(경영 07)	최유진(경영 05)	김진숙	정양오	민재원(경영 08)	박상웅(석사 11)
이강욱(경영 05)	최재환(경영 03)	김창근	정의현	박극렬(경영 10)	배창현(석사 11)
이경원(경영 04)	최지혜(경영 08)	김창형	정재학	박보미(경영 07)	서금희(석사 08)
이광용(경영 04)	최혜선(경영 08)	김태승	정한길	박주홍(경영 06)	요범(석사 11)
이광희(경영 05)	최홍석(경영 05)	김한준	제희원	박현재(경영 08)	유정민(박사 09)
이동욱(경영 04)	허운회(경영 04)	문웅상	조용진	방현준(경영 05)	유혜영(박사 09)
이슬(경영 07)	허준(경영 04)	박석돈	조인식	배인해(경영 07)	이미리(석사 10)
이영선(경영 05)	현지은(경영 07)	박영웅	조태연	배현성(경영 09)	이종민(석사 11)
이예솔(경영 07)	홍성은(경영 07)	박일동	채희경	서석완(경영 07)	정은경(석사 11)
이원제(경영 07)		박종원	최동완	서윤지(경영 07)	정현기(박사 09)
이유진(경영 05)	석박사	박춘홍	최인실	서정윤(경영 08)	조재현(석사 11)
이재형(경영 04)	김기수(석사 10)	백상현	최준환	송지영(경영 08)	조정은(박사 09)
이정민(경영 07)	김혜미(석사 10)	변현근	최현식	신재승(경영 05)	최우담(석사 11)
이정환(경영 05)	김홍(박사 08)	서보희	하인호	신희웅(경영 05)	최종철(박사 09)
이정훈(경영 05)	송성애(석사 10)	손기영	한기암	심정훈(경영 06)	표현상(박사 09)
이지인(경영 06)	신현준(석사 10)	손기종	한인섭	안자인(경영 09)	
이태현(경영 06)	이경화(석사 10)	손원형	홍순기	양준영(경영 08)	MBA 2011
이한(경영 04)	이길태(석사 10)	송영구	황지원	오윤영(경영 08)	강우석
임그린(경영 07)	이원석(석사 10)	안병욱		오효석(경영 08)	강지선
임상은(경영 07)	이철원(석사 07)	안정진	MBA 2007	이강휘(경영 05)	계승호
임상혁(경영 04)	정기위(박사 08)	양주윤	송주호	이다미(경영 08)	고광수
임철성(경영 04)	조효배(석사 09)	오영우		이동현(경영 09)	권경미
임현민(경영 05)	진 하(석사 10)	원종규	MBA 2008	이상정(경영 06)	김동욱
장미리(경영 05)	채수준(박사 09)	유성원	장기호	이세종(경영 04)	김미혜
장세경(경영 07)		유태인		이승연(경영 08)	김민선
장수찬(경영 07)	MBA 2010	윤덕수		이용진(경영 06)	김상연
장은지(경영 05)	Leif Karlen	윤법렬	Class Gift 2013	이원우(경영 06)	김성원
장재웅(경영 05)	강민석	윤치영		이재명(경영 06)	김수
장혜림(경영 08)	강성준	이건학	학부	이지혁(경영 08)	김수정
전미선(경영 05)	강천기	이관우	강미나(경영 09)	이태현(경영 05)	김수현
전범준(경영 02)	고병운	이국성	강수민(경영 09)	이형준(경영 06)	김재범
전웅배(경영 05)	고석환	이동우	권경환(경영 05)	임슬기(경영 08)	김정민
정미홍(경영 07)	권광호	이동훈	권대웅(경영 05)	임승진(경영 05)	김종진

석박사

고옥결(석사 11)
박상웅(석사 11)
배창현(석사 11)
서금희(석사 08)
요범(석사 11)
유정민(박사 09)
유혜영(박사 09)
이미리(석사 10)
이종민(석사 11)
정은경(석사 11)
정현기(박사 09)
조재현(석사 11)
조정은(박사 09)
최우담(석사 11)
최종철(박사 09)
표현상(박사 09)

MBA 2011

강우석
강지선
계승호
고광수
권경미
김동욱
김미혜
김민선
김상연
김성원
김수
김수정
김수현
김재범
김정민
김종진

김준석
김태범
김태성
김태훈
김현옥
나호섭
류근선
류성현
민기식
박경택
박광인
박현창
변윤상
서시연
송승룡
송진현
신나라
신현우
안기종
오세규
유준수
윤재웅
윤현진
이강복
이동엽
이득흔
이용서
이은행
이재은
이재현
이정호
이정환
이준혁
이지은
이지현
이진영
이창선
이창주
이창희
이필성
이행근
이현주
이호원
이희재
임원배
장은석
정두섭
정해창

MBA 2010

고진배
이윤희

Class Gift 2014

학부

강건(경영 08)
강한수(경영 06)
관평(경영 09)
김나정(경영 09)
김맑음(경영 05)
김민수(경영 08)
김민정(경영 09)
김민지(경영 08)
김보귀(경영 04)
김선익(경영 06)
김수진(경영 08)
김은우(경영 06)
김종서(경영 07)
김지수(경영 09)
김지영(경영 09)
김충환(경영 07)
김태룡(경영 04)
김필수(경영 07)
김현해(경영 05)
김형상(경영 06)
김혜련(경영 08)
김혜연(경영 10)
김혜은(경영 10)
김희준(경영 08)
남동경(경영 07)

남승현(경영 09)
노은영(경영 08)
마성혁(경영 08)
맹려휘(경영 09)
문호선(경영 04)
박기범(경영 08)
박수빈(경영 09)
박재민(경영 06)
박진회(경영 09)
방승환(경영 06)
백성희(경영 07)
서연진(경영 09)
안경은(경영 07)
안병찬(경영 06)
양은혜(경영 08)
오명은(경영 09)
오홍석(경영 07)
유기성(경영 06)
유재은(경영 06)
윤영진(경영 06)
윤형식(경영 05)
이길훈(경영 05)
이민제(경영 06)
이서영(경영 10)
이슬기(경영 12)
이승규(경영 06)
이승환(경영 04)
이영실(경영 08)
이요한(경영 10)
이윤석(경영 04)
이은일(경영 09)
이인영(경영 07)
이장훈(경영 07)
이정현(경영 10)
이정훈(경영 07)
이준연(경영 09)
이창원(경영 07)
이지아(경영 09)
이혁주(경영 06)
이현주(경영 08)
이혜진(경영 09)
이호준(경영 05)
임유나(경영 09)
임준혁(경영 06)
임진우(경영 07)
임홍섭(경영 08)
장순규(경영 06)
장영진(경영 09)

석박사

강경선(석사 11)
김자영(석사 11)
김지연(석사 11)
나함(석사 11)
박순채(박사 05)
서근영(박사 10)
석미옥(석사 11)
양영수(박사 09)
이가림(박사 10)
이지숙(박사 08)
장련(박사 09)
초옥(석사 11)
최성호(석사 12)
표경민(박사 10)
Hsu Mon Yee(석사 11)
Lixia
MBA 2012
강순석
고인홍
고한규

구경영
권정훈
기응수
김강정
김낙균
김미영
김상일
김성주
김성현
김우식
김정호
김지나
김지현
김진형
김태균
김현규
김현호
남상직
노석진
노현승
박남수
박성준
박정우
박희갑
박희열
배상현
서정욱
심형섭
안보경
안상현
안승준
양일수
양재훈
연구선
오병성
오신영
오해영
윤창민
이강남
이상현
이상훈
이신호
이영진
이인재
이정훈A
이정훈B
이창원
이해리

이호철
임신욱
전민형
전종웅
전행욱
정기호
정민정
정진호
조성환
주민규
최종훈
최준익
최현숙
한성훈

MBA 2011

김기태
류건형
유혜진
이상일

MBA 2009

정지웅

MBA 2008

박병현
유희열

AMP 2008

이은희xw

위 기부 약정자 명단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경영대학 기금에 약정해 주신 개인, 단체 및 기업의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부금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이름 불명확 등의 사유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기부인 경우 단체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영대학 대외협력실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2123-5445, ysb-edo@yonsei.ac.kr)

당신께서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예우 내역 : 개인

구 분	기부금 규모별 혜택						
	1백~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감사카드	○	○	○	○	○	○	○
Donor Wall 또는 경영관 공간내 기부자 이름 각인	○	○	○	○	○	○	○
소식지	○	○	○	○	○	○	○
기념품 (독수리액자)		○	○	○	○	○	○
연세달력		○	○	○	○	○	○
도서관 이용 (도서 열람 및 대출)		○	○	○	○	○	○
공간명명				○	○	○	○
부속교육기관 학비감면		20%	20%	30%	30%	50%	100%
특수대학원 학비감면					30%	50%	100%
건강검진		30%	30%	무료검진권 1매	무료검진권 2매	무료검진권 4매	무료검진권 8매
진료비 감면				10%	20%	50%	100%
진료편의(동행서비스)				제공	제공	제공	제공
무료주차(연간)		250시간	250시간	500시간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동문회관, 정례식장 이용료 감면				20%	30%	50%	100%

예우 내역 : 기언

구 분	1억	3억	5억	10억
기업로고 상시 노출	0	0	0	0
기업설명회 개최 공간 부여	0	0	0	0
기업 CEO 특강 기회 마련		0	0	0
기업 요청시 추천채용 진행			0	0
공간명명				0

* 기업 예우는 2014년 3월 1일 이후 출연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 위 예우 내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출연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계좌 우리은행 126-000082-18-358 (학)연세대학교

납부 방법 일제납, 정기납, 수시납 중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

참여 문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Tel. 02-2123-5445 Fax. 02-2123-8639 E-mail: ysb-edo@yonsei.ac.kr

건강식품은 **물**이 중요합니다

30년 전통의 건강식품 전문기업 천호식품!
천호식품에서 만드는 180여가지의 제품은 지하 330m 천연암반수로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 지하 330m에서 끌어올린 천연천연수를 RO시스템으로 여과한 깨끗한 물만을 사용하므로 품질과 맛이 좋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HACCP, GMP시스템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 18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우수한 천후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천종식품은 정직한 원료, 정직한 제품, 정직한 가격, “내가 먹지 않는 것은 결코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념으로 전직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식품 베스트 제품”

천후식품의 전 제품은 재료 선별부터 10단계 이상의 깐깐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 +82-2-2123-5445 Fax : +82-2-2123-8639
Homepage : <http://ysb.yonsei.ac.kr>